

국가회계 재지토계

ISSN 2635-7119

2024년 가을호
Vol. 40



Government Accounting and
Finance Statistics Center

국가회계 동향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재정통계 동향
「2025년 예산안」 편성 및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제출

공기업·준정부기관 공익법인회계 동향
2023회계연도 준정부기관 결산결과 분석

세미나
제5회 KIPF 발생주의 회계 국제심포지엄
개최 안내

CONTENTS

2024년 가을호

Vol. 40

Government Accounting and Finance Statistics Center



국가회계 재정통계

VOL. 40

계간 국가회계재정통계 2024년 가을호

발행인 이 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편집 문창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 직무대리
진태호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국가회계팀장(국가회계 총괄)
윤성호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결산교육팀장(결산교육 총괄)
박윤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재정통계팀장(재정통계 총괄)
전화 044-414-2561(센터)
홈페이지 <http://gafsc.kipf.re.kr>
발행일 2024년 9월 30일
제작처 경성문화사

국가회계 동향

- 04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 09 2024년 2분기 IPSASB 정례회의 참석 결과
- 26 『2024 알기 쉬운 국가회계』 발간

국가결산 및 교육 동향

- 28 2024회계연도 재무결산 중간점검 실시
- 29 『2024 재무결산 오류사례 해설』 발간
- 31 2024년 국가회계 전문교육(3~10차) 실시 결과
- 32 2024회계연도 국가회계전문교육 안내
(재무결산실무, 국가회계의 활용)

재정통계 동향

- 36 「2025년 예산안」 편성 및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제출
- 44 「2024~2028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제출
- 47 IMF GFSM 2014 개정 계획 발표



공기업·준정부기관 공익법인회계 동향

- 52 2023회계연도 준정부기관 결산결과 분석
- 63 2024년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9~11월) 안내
- 66 2022년 공익법인 재무현황

세미나

- 74 제5회 KIPF 발생주의 회계 국제심포지엄 개최 안내



공지사항

- 77 국가회계재정통계 구독 안내
홈페이지 이용 안내

국가회계
재지통계



국가회계 동향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 2024년 2분기 IPSASB 정례회의 참석 결과
- 『2024 알기 쉬운 국가회계』 발간

01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국가재정의 현금흐름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결산보고서를 구성하는 서류 중 하나인 재무제표에 현금흐름표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국가회계법」이 개정(법률 제20402호, 2024. 3. 26. 공포, 2025. 1. 1. 시행)됨에 따라, 이의 작성기준을 정하는 한편,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재정상태표를 간소화하기 위해 재정상태표에 표시되는 유동자산과 투자자산을 금융자산으로 통합하고, 재정운영 상황을 수익과 비용을 기준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성질별 재정운영표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의 일부개정안이 2024년 7월 31일에 공포되었다. 시행일은 2025년 1월 1일로 2025회계연도부터 시행된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현금흐름표 도입 관련 서식 규정

국가 현금흐름을 재정활동별(운영·투자·재무)로 파악하기 위해 재무제표의 구성에 현금흐름표가 신설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정의 및 서식, 작성기준 등을 규정하였다.

〈구 조문〉	〈신 조문〉
<p>제5조(재무제표와 부속서류)</p> <p>① 재무제표는 「국가회계법」 제14조 제3호에 따라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로 구성하되,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포함한다.</p>	<p>제5조(재무제표)</p> <p>① 재무제표는 「국가회계법」 제14조 제3호에 따라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및 현금흐름표로 구성하되,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포함한다.</p>

제53조의2(현금흐름표)

- ① 현금흐름표는 회계연도 동안의 현금의 유입 및 유출내역을 나타내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 ② 현금흐름표는 별지 제8호 서식과 같다.

제53조의3(현금흐름표의 작성기준)

- ① 현금흐름표는 회계연도 중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에 회계연도 초의 현금을 더하여 회계연도 말의 현금을 산출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1. 운영활동: 국가의 재정활동 중 제2호의 투자활동과 제3호의 재무활동에 속하지 않는 활동
 2. 투자활동: 자금의 용자와 회수, 투자증권과 유·무형자산의 취득 및 처분 등의 활동
 3. 재무활동: 자금의 차입과 상환, 국채의 발행과 상환 등 부채와 순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
-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운영활동의 경우에는 현금의 유입은 원천별로, 현금의 유출은 용도별로 각각 분류하는 직접법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유동성 기준 및 자산의 장·단기 구분 삭제

자산·부채 계정과목이 장·단기로 구분되어 재정상태표 분량이 많아지고 쉽게 이해하기 어려워, 자산·부채의 유동성 개념을 삭제하고 장·단기 구분(유동자산 및 부채, 투자자산 등)을 삭제하였다.

〈구 조문〉	〈신 조문〉
제8조(재정상태표 작성기준) ①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배열한다. 이 경우 유동성이란 현금으로 전환되기 쉬운 정도를 말한다.	제8조(재정상태표 작성기준) ① 삭제 〈2024. 7. 31.〉

다. 재정상태표 자산 분류 체계개편 및 간소화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재정상태표를 간소화하기 위해 계정과목의 재정상태표에 표시되는 유동자산과 투자자산을 금융자산으로 통합하고 유·무형자산 및 기타 자산으로 구분하여 재정상태표에 표시하도록 변경하는 등 체계를 간소화하였다.

〈구 조문〉	〈신 조문〉
제9조(자산의 정의와 구분) ② 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무형자산 및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여 재정상태표에 표시한다.	제9조(자산의 정의와 구분) ② 자산은 금융자산, 유·무형자산 및 기타 자산으로 구분하여 재정상태표에 표시한다.

라. 성질별 재정운영표 추가

현행 재정운영표는 원천별 구분을 기반으로 수익 및 비용을 발생단계별로 표시하고 있는바, 성질에 따라 구분할 수 있도록 수익 및 비용을 성질별로 구분하고 성질별, 분야별 재정운영표를 신설하였다.

제28조(수익의 정의와 구분)

- ① 수익은 국가의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발생하거나,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법령에 따라 납부의무가 발생한 금품의 수납 또는 자발적인 기부금 수령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순자산의 증가를 말한다.
- ② 수익은 그 원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4. 7. 31.>
 1. 교환수익: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발생하는 수익
 2. 비교환수익: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수익
- ③ 수익은 그 성질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신설 2024. 7. 31.>
 1. 국세수익: 국가가 조세를 징수하여 발생하는 수익
 2. 이전수익: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수익 중 제1호의 국세수익을 제외한 수익
 3. 국가운영수익: 국가의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 중 제1호의 국세수익과 제2호의 이전수익을 제외한 수익

마. 재무제표 부속서류 통합(주식체계 개편)

재무제표 부속서류가 주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로 분산되어 이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어 재무제표 부속서류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관련내용은 제55조(주식)으로 통합하였다.

〈구 조문〉	〈신 조문〉
제5조(재무제표와 부속서류) ② 재무제표의 부속서류는 필수보충정보와 부속명세서로 한다.	제5조(재무제표) ② (삭제)

〈구 조문〉	〈신 조문〉
<p>제54조(필수보충정보)</p> <p>① 필수보충정보는 재무제표에는 표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재무제표의 내용을 보완하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를 말한다.</p> <p>② (생략)</p> <p>③ 필수보충정보의 작성기준과 서식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54조 (삭제)</p>
<p>제55조(주석)</p> <p>② 이 규칙에서 규정한 주석 사항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석으로 표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요한 회계처리방법 2. 장기차입부채 상환계획 3. 장기충당부채 4.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 5. 우발사항 및 약정사항(지급보증, 파생상품, 담보제공자산 명세를 포함한다) 6. 전기오류수정 및 회계처리방법의 변경 7. 순자산조정명세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재무제표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p>제55조(주석)</p> <p>② 주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무제표 작성기준 및 중요한 회계처리방법 2. 이 규칙에서 주석 공시를 요구하는 사항 3.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및 현금흐름표에 표시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추가 정보
<p>제56조(부속명세서)</p> <p>부속명세서는 재무제표에 표시된 회계과목에 대한 세부 명세를 명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속명세서의 종류, 작성기준 및 서식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56조 (삭제)</p>

바. 기타 변경사항

순자산조정외의 구분을 세부화하고, 규칙의 용어 중 재정운영결과를 재정운영순원가료 변경하는 등 규칙 본문 일부를 개정하였으며, 별지서식이 개정 및 신설되었다.

개정사항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며,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의 하위 규정인 「국가회계예규」 또한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재 22개의 예규의 개정과 가칭 ‘현금흐름표 회계처리지침’을 신설하여 2024년 내 공포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02 2024년 2분기 IPSASB 정례회의 참석 결과



가. 출장 개요

목 적: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 정례회의 참석
출장기간: 2024. 6. 24.(월) ~ 2024. 6. 30.(일)
출 장 지: 토론토, 캐나다

나. 주요 내용

2024년 2분기 IPSASB¹⁾ 정례회의가 6월 말 4일간에 걸쳐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되었다. IPSASB는 6월 회의에서 IPSAS 개선 과제 중 '기타 리스유사 약정(Other Lease-type Arrangements)', '재무제표 표시(Presentation of

1) IPSASB: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Board)

Financial Statements), '천연자원(Natural Resources)'과 관련된 최신 쟁점을 다루었다. 또한 주요 주제 중 하나인 '지속가능성 기후 관련 공시(Sustainability-Climate Related Disclosures)'와 최근 공표된 'IFRS 18, 재무제표의 표시와 공시(Presentation and Disclosure in Financial Statements)'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다. 세부 내용

1) 기타 리스유사약정(Other Lease-type Arrangements)

IPSASB는 2024년 3월 28일 ED 88, 자산에 대한 권리를 이전하는 약정을 발행하였다. 이 ED 88의 IPSAS 47 '수익'과 관련된 개정사항은 ED 84, 할인리스 및 무상 사용권자산(IPSAS 43²⁾ 및 IPSAS 23³⁾ 개정)에서 지지되는 원칙과 일치한다. 추가적으로 ED 88에서 일반적인 자산에 대한 권리를 이전하는 기타 유사 약정과 관련하여 IPSAS 47 '수익'과 IPSAS 48 '이전 비용'에 수반되는 적용사례를 제안하였다.

IPSASB는 2024년 6월 정례회의에서 ED 88에 대한 응답자 의견에 대하여 개괄적 분석 결과를 검토하였다. 개괄적 분석 결과, 28개의 응답 중 대다수의 응답자가 ED 88을 지지(동의 또는 부분 동의)하였으며, 소수의 응답자만이 ED 88의 제안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표 1 ED 88 관련 응답자 의견에 대한 개괄적 분석 결과

응답	응답자					
	SMC 1 ¹⁾		SMC 2 ²⁾		SMC 3 ³⁾	
	IPSAS 47 규정 문헌		IPSAS 47 비규정 문헌		IPSAS 48 비규정 문헌	
	#	%	#	%	#	%
동의	16	57	16	57	19	68
부분적으로 동의함	8	29	8	29	6	21
동의하지 않음	4	14	4	14	3	11
Total	28	100	28	100	28	100

2) IPSAS 43 '리스'

3) IPSAS 23 '비교환 거래 수익'(세금 및 이전)

- 주: 1) 의견 1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IPSASB는 할인리스의 할인과 관련된 IPSAS 23, '비교환 거래 수익(세금 및 이전)'에 대한 ED 84, 할인리스 및 무상 사용권자산의 제안을 IPSAS 47 '수익'에 적용하기로 결정
- 2) 의견 2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IPSASB는 IPSAS 47 '수익'에서 자산에 대한 권리를 이전하는 약정에 대해 비규정 문헌(적용사례)을 제안하기로 결정
- 3) 의견 3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IPSASB는 IPSAS 48 '이전 비용'에서 자산에 대한 권리를 이전하는 약정에 대해 비규정 문헌(적용사례)을 제안하기로 결정

ED 88에 동의하지 않은 소수 응답자의 사유와 응답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2 ED 88에 동의하지 않은 소수 응답자의 사유와 응답자의 특성

구분	주요 내용
ED 88에 대해 동의하지 않은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ED 84, 할인리스 및 무상 사용권자산과 동일한 개념적 불일치 이유 IPSAS 23 '비교환 거래 수익(세금 및 이전)'과 IPSAS 47 '수익'은 수익에 대해 서로 다른 회계원칙을 가지고 있음 IPSAS 46 '측정' 및 IPSAS 47 '수익'과 명백한 불일치 시장 조건 또는 인센티브에 따라 리스료를 결정하는 데 지침 부족 응답자의 관할권에서 ED 88, 자산에 대한 권리를 이전하는 약정을 적용하는 데 타당성이 부족 ED 88, 자산에 대한 권리를 이전하는 약정에 제안된 예시는 IPSAS 48 '이전 비용' 및 IPSAS 19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ED 88에 동의하지 않은 응답자의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수 의견 특정 관할권에 해당 IPSASB의 규정과 불일치 ED 84 및 ED 88에서 고려하지 않은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음

또한 IPSASB는 ED 84, 할인리스 및 무상 사용권자산 및 ED 88, 자산에 대한 권리를 이전하는 약정의 제목을 병합하여 최종 발표문의 제목을 '할인리스 및 자산에 대한 권리를 이전하는 기타 약정(IPSAS 43⁴⁾, IPSAS 47⁵⁾ 및 IPSAS 48⁶⁾ 개정')으로 최종 결정하였다. 이는 리스(할인리스)의 정의를 충족하는 약정을 리스의 정의는 충족하지 않지만 자산에 대한 권리를 이전하는 다른 유형의 약정과 명확하게 구별하고, 정보 요청서(RFI)에 명시된 모든 계약, 할인리스 및 리스와 유사한 기타 약정을 포괄하기 위함이다.

IPSASB는 2024년 6월 정례회의에서 ED 88에 관한 응답자의 의견을 정성적으로 검토하고 일부 응답자의 의견을 수용한 후 ED 84 및 ED 88에서 제안된 원칙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응답자의 폭넓은 지지를 기반으로 하여 최종

4) IPSAS 43 '리스'
 5) IPSAS 47 '수익'
 6) IPSAS 48 '이전비용'

발표문을 승인하기 위한 투표를 진행하였다. 이 최종 발표문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추가적으로 결론도출근거는 2024년 7월 점검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처럼 IPSASB는 IFRS⁷⁾의 리스 기준서 개정 내용을 바탕으로 공공부문의 특성을 반영하여 IPSAS의 리스 기준서를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다. 반면 우리나라 국가회계기준의 경우 아직 IFRS의 리스 기준서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있지 않아 리스와 관련된 회계처리, 특히 운용리스 회계처리에 대한 국제적인 비교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국가회계기준이 IFRS와 IPSAS의 개정 사항을 무조건 반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추후 국가회계기준상 리스 회계처리지침의 개정 필요성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2) IFRS 18, '재무제표의 표시와 공시'(Presentation and Disclosure in Financial Statements)

최근 2024년 4월 9일 IASB⁸⁾는 IFRS 18, 재무제표의 표시와 공시 기준서를 확정 발표하였으며, IASB의 담당 Staff는 IPSASB 2024년 6월 정례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소개하였다.

IFRS 18은 재무성과 보고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회계기준으로 기업의 재무성과와 관련된 더 나은 정보를 원하는 투자자의 수요에 대응하고, 재무제표에서 정보가 전달되는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IFRS 18의 도입으로 인하여 앞으로 기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비교하기 위한 더 나은 기반을 투자자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IFRS 18의 도입으로 인한 주요 변화는 ① '영업손익'을 포함한 손익계산서에 새로운 중간합계 신설 ②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Management-defined Performance Measures, MPMs)에 대한 공시 ③ 정보의 그룹화(통합 및 세분화)에 대한 지침 강화이다.

7) IFRS: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8) IASB: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첫째, IFRS 18의 도입으로 손익계산서상 새로운 범주 및 중간합계가 신설된다. 현재 손익계산서는 기업 간 손익계산서의 내용과 구조가 다양하여 재무성과의 비교가 어렵다는 우려가 존재하였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일관된 손익계산서 구조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세 가지 범주인 영업범주, 투자범주, 재무범주를 제시하였으며,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두 가지 중간합계로 영업손익, 재무손익 및 법인세차감전손익을 제시하였다.

표 3 IFRS 18의 손익계산서 구조 예시

손익계산서

매출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기타 영업이익

판매관리비

연구개발비

일반관리비

영업권 손상차손

기타 영업비용

영업손익¹⁾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에 대한 지분법손익

기타 투자이익

재무손익및법인세차감전손익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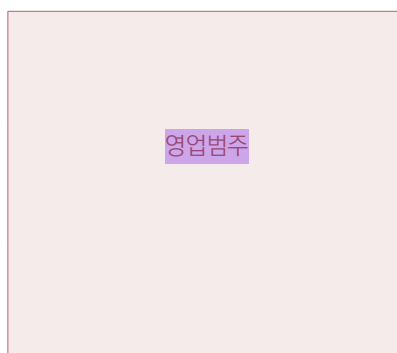
차입금 및 리스부채 이자비용

퇴직연금부채 이자비용

법인세차감전손익

법인세비용

당기순손익



주: 1) 영업손익: 기업의 영업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제공

2) 재무손익및법인세차감전손익: 재무범주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 기업의 성과에 대한 완전한 그림을 제공

둘째,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MPMs)에 대하여 공시한다.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는 IFRS 회계 기준서에서 요구되지 않거나 특별히 면제되는 이익 및 비용의 중간합계로, 재무제표의 공개 커뮤니케이션에서 사용되고 재무성과에 대한 경영진의 관점을 전달하는 데 사용된다. 투자자들은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가 유용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측정값이 계산되는 방식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와 관련하여 IFRS에서

정의한 중간합계로의 재조정,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가 보고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가 계산되는 방식에 대한 설명,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의 변동사항에 대한 설명을 공시하여야 한다.

표 4 현재 사용되는 대체 성과 측정(APMs) 또는 non-GAAP 측정의 예

- 조정영업이익
- 조정당기순이익
- 조정EBITDA(Earnings Before Interest, Taxes,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 잉여현금흐름
- 자기자본이익률(Return on equity)

셋째, 정보의 그룹핑(통합 및 세분화)에 대한 지침이 강화된다. 현재 일부 기업은 자세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중요한 정보가 가려져 있다는 투자자의 우려가 존재한다. 따라서 정보의 그룹핑(통합 및 세분화)을 위한 강화된 요구사항을 마련하고, 주요 재무제표와 주식의 역할에 맞게 항목을 통합 또는 세분화하도록 하였다.

IFRS 18은 기존의 IAS 1 '재무제표의 표시'를 대체하여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새로운 표시와 공시를 요구한다. 다만 기업이 재무제표 항목을 인식하고 측정하는 방법은 변경되지 않으며, IFRS 18의 도입으로 이처럼 더 나은 결정을 위한 더 나은 정보의 제공으로 인하여 비교가능성, 투명성 및 정보유용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 기업의 경우 IFRS 18의 확정 발표에 따라 재무성과 보고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기준이 도입될 예정이며, 특히 손익계산서의 작성 방식에 큰 변화가 발생할 것이다. 우리나라 국가회계기준의 경우 현재 재정운영표를 포함한 재무제표의 구조에 대한 개편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는 IFRS 18의 손익계산서상 범주 및 중간합계 등을 고려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앞으로 민간 기업에 IFRS 18이 도입되는 경과와 IPSAS에서 IFRS 18과 다른 공공부문의 특성을 고려한 검토가 진행되는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지속가능성-기후 관련 공시(Sustainability-Climate Related Disclosures)

‘지속가능성-기후 관련 공시’ 프로젝트는 국제적인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을 바탕으로 하여 보고실체가 적용할 기후 관련 공시 요구사항을 개발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지난 2023년 6월 회의에서 IPSASB는 기후 관련 공시(Climate-Related Disclosures) 프로젝트의 프로젝트 개요를 승인하였다. 2023년 9월 회의에서 기후 관련 공시 기준서의 개발 계획을 발표 후에 이를 승인하였고, 현재까지 공개초안을 개발하기 위한 검토를 계속해 오고 있다.

그림 1 기후 관련 공시 프로젝트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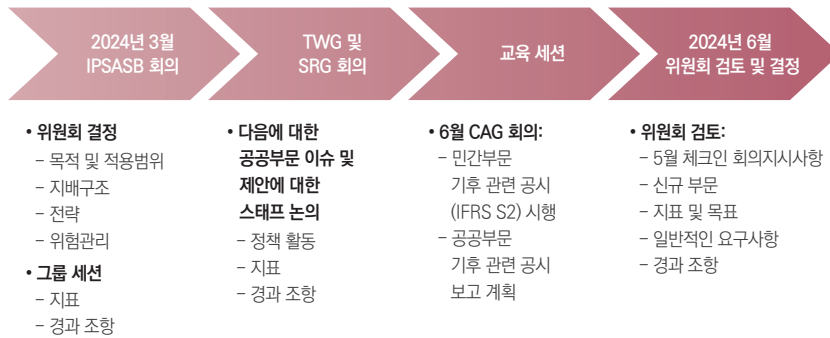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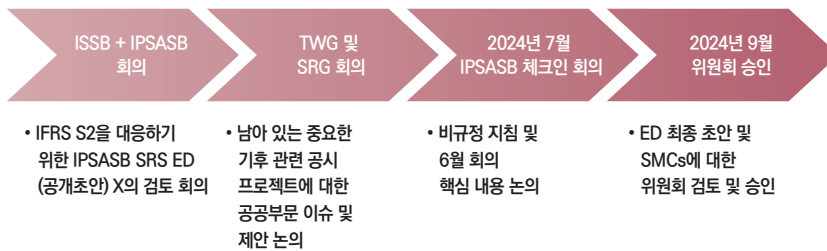


그림 2 기후 관련 공시 프로젝트 다음 단계



이번 회의에서는 공개초안 항목 중 보고대상에 대한 범위에 대해 검토하였다. 정책 활동 보고의 범위는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명시적으로 설계된 정책 활동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쟁점사항이 존재한다.

① 내부 vs 외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은 모두 내부 정책 활동이 존재하지만, 공공부문은 민간부문과 다르게 다른 기관 및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외부 정책도 중요하기 때문에 외부 정책 활동만을 공시하도록 지정할 필요가 있다.

② 모든 정책활동 vs 기후관련 정책활동

기후 관련 정책 활동을 보고할 것인지 혹은 모든 정책활동으로 범위를 넓힐지 지정할 필요가 있다.

③ 정책 만드는 사람 vs 시행하는 사람

정책을 만드는 사람과 시행하는 사람 각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긍정적 혹은 부정적)에 대한 내용을 추가할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5월에 개최된 체크인 회의의 후속 논의가 이어졌다. 공개초안의 목표 및 범위와 관련하여 '서비스 제공'이 장기 재정 지속가능성의 한 측면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목표 문단을 명확히 하도록 수정하였고, 정의에서는 RPG 3의 '산출물(output)'에 대한 지침을 명확히 하였다. 여기에는 정책 활동을 포함시키도록 수정하였으며, 지배구조 및 전략 문단의 목표에 비재무 보고를 포함하도록 업데이트 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략과 관련하여 자체 운영 및 정책 활동에 대한 임계값과 정책 설정 기관이 더 높은 임계값을 유지해야 하는지 여부를 재고려하여 관련 문단을 수정하기로 결정하였다.

기후 관련 정책 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분석) 온실가스 배출

① 가치 사슬이나 관할권과 같은 범위 내의 재고자산

② 정책 및 프로그램의 감소와 같은 온실가스 배출 변화는 결과에 대한 명확한 회계 책임 제공

• (방법론) 온실가스 프로토콜 정책 및 조치 기준을 포함한 다양한 지침 원천

온실가스(Greenhouse Gas, GHG) 프로토콜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과 보고에 관한 파트너십으로 온실가스 회계처리 및 보고 기준을 제공한다. GHG 프로토콜은 온실가스 산정 및 보고를 위해 3개의 범위(scope)를 설정하고 있으며, 범위 1은 직접적인 온실가스 배출로 기업의 소유 혹은 통제하에 있는 보일러, 자동차 등의 연소로 인한 배출과 설비시설, 화학적 생산활동으로 인한 배출 등을 포함한다. 범위 2는 전력 사용으로 인한 간접적인 온실가스 배출로 사업자가 소비하는 구입 전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산정한 것이다. 범위 3은 기타 간접적인 온실가스 배출로 사업자 활동의 결과이지만 사업자가 직접 소유하거나 통제하지 않는 배출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말한다.

그림 3 GHG 프로토콜의 범위 및 탄소 배출량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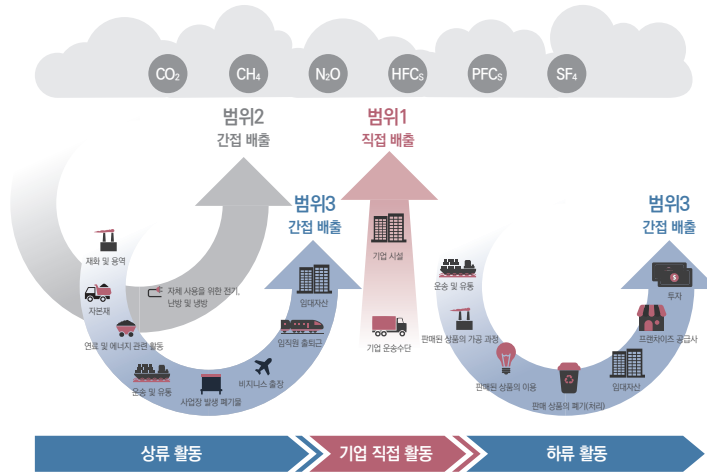


표 5 온실가스 회계처리 보고기준에서 정의하는 scope 3 15개 카테고리 분류

상류(카테고리 1~8)	하류(카테고리 9~15)
1. 재화 및 용역	9. 하류 운송 및 유통
2. 자본재	10. 판매된 상품의 가공 과정
3. 범위 1 또는 2에 포함되지 않는 연료 및 에너지 관련 활동	11. 판매된 상품의 이용
4. 상류 운송 및 유통	12. 판매 상품의 폐기(처리)
5. 사업장 발생 폐기물	13. 하류 임대 자산
6. 비즈니스 출장	14. 프랜차이즈 공급사
7. 임직원 출퇴근	15. 투자
8. 상류 임대 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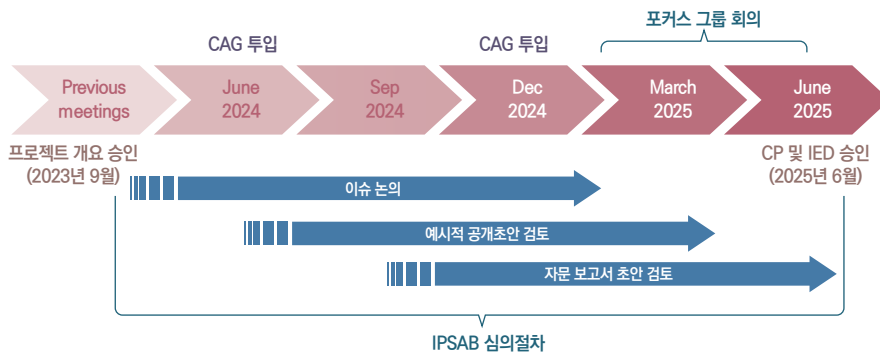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공시 의무를 고려하고 있다.

- ① 기후 관련 정책 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예상 변화
- ②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법 및 범위에 대한 설명

4) 재무제표 표시(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재무제표 표시’ 프로젝트는 IPSAS 1 ‘재무제표 표시’를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IPSAS 기준서를 개발하여 일반목적 재무제표에 보고된 재무정보의 의사소통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현재 자문보고서(CP) 개발 단계가 진행 중이다. 그 중 프로젝트 목표, 범위, 정의, 접근방식 개발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재무제표의 목적, 표시의 일반원칙, 재무제표 요소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림 4 재무제표 표시 프로젝트 진행과정



이번 회의의 주요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재무상태표 표시에 대한 논의: 자산과 부채의 분류, 재무상태표 구조 및 소계, 시행지침
- 공개 초안의 예시 검토: 목적, 범위, 기타 정의, 재무제표의 목적,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책임성, 재무제표와 주식의 역할

표 6 재무제표 표시 안건 세부사항

■ 안건 8 : 재무제표 표시(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안건 항목	내용						
8.2.1	<p>자문보고서 및 예비적 공개초안의 개발</p> <p>[목적] IPSAB의 재무제표 표시 프로젝트의 첫 번째 단계의 일부로서 자문보고서 및 그에 수반되는 예비적 공개초안(IED)을 개발하기 위해 IPSASB를 업데이트하는 것이다.</p> <p>[프로젝트 요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IPSAS 1, 재무제표 표시를 대체할 새로운 IPSAS를 개발함으로써 공공부문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재무정보의 의사소통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 목적의 핵심은 책임과 의사결정 목적으로 범용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한 보고 주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의 구조, 위치, 요구되는 최소 공시 및 현재 IPSAS 1에 제시된 전반적인 표시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 이 프로젝트는 여러 이해관계자의 피드백을 장려하고 대안적인 표시 접근방식을 고려할 수 있도록 3단계에 걸쳐 개발되고 있다. 						
	<table border="1"> <tr> <td style="width: 30%;">1단계 - 자문보고서 (CP) 및 예비적 공개 초안(IED)</td> <td>프로젝트의 현재 단계는 IPSAS 1을 대체하여 기존 표시 요구 사항 관련 개선사항에 대한 IPSAB의 예비 의견에 대한 피드백에 대한 단계이다. IED는 CP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IPSASB의 예비 견해에 기초하여 새로운 기준에 대한 구성원들의 이해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td> </tr> <tr> <td>2단계 - IPSAS 1을 대체할 공개초안 (ED) 전문과 다른 IPSAS 기준에 대한 후속 수정사항</td> <td>1단계로부터의 구성원의 피드백을 고려하여 다른 IPSAS 기준에 대한 ED 전문 및 개정판을 개발하고 공개 협의를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td> </tr> <tr> <td>3단계 - IPSAS 최종발표</td> <td>2단계에서 받은 구성원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최종 IPSAS 및 다른 IPSAS 기준에 대한 후속 수정사항이 반영될 것이다.</td> </tr> </table>	1단계 - 자문보고서 (CP) 및 예비적 공개 초안(IED)	프로젝트의 현재 단계는 IPSAS 1을 대체하여 기존 표시 요구 사항 관련 개선사항에 대한 IPSAB의 예비 의견에 대한 피드백에 대한 단계이다. IED는 CP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IPSASB의 예비 견해에 기초하여 새로운 기준에 대한 구성원들의 이해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2단계 - IPSAS 1을 대체할 공개초안 (ED) 전문과 다른 IPSAS 기준에 대한 후속 수정사항	1단계로부터의 구성원의 피드백을 고려하여 다른 IPSAS 기준에 대한 ED 전문 및 개정판을 개발하고 공개 협의를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3단계 - IPSAS 최종발표	2단계에서 받은 구성원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최종 IPSAS 및 다른 IPSAS 기준에 대한 후속 수정사항이 반영될 것이다.
	1단계 - 자문보고서 (CP) 및 예비적 공개 초안(IED)	프로젝트의 현재 단계는 IPSAS 1을 대체하여 기존 표시 요구 사항 관련 개선사항에 대한 IPSAB의 예비 의견에 대한 피드백에 대한 단계이다. IED는 CP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IPSASB의 예비 견해에 기초하여 새로운 기준에 대한 구성원들의 이해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2단계 - IPSAS 1을 대체할 공개초안 (ED) 전문과 다른 IPSAS 기준에 대한 후속 수정사항	1단계로부터의 구성원의 피드백을 고려하여 다른 IPSAS 기준에 대한 ED 전문 및 개정판을 개발하고 공개 협의를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3단계 - IPSAS 최종발표	2단계에서 받은 구성원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최종 IPSAS 및 다른 IPSAS 기준에 대한 후속 수정사항이 반영될 것이다.						
<p>[자문보고서(CP) 및 예비적 공개 초안(IED)의 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젝트의 첫 번째 단계는 CP와 IED를 개발하는 것이다. IPSASB는 이 프로젝트가 공공재정관리(PFM) 체계 내에서 범용 재무제표의 중요성과 보고 체계에 대한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위한 CP 내용을 포함하도록 결정했다. 해당 단계를 통해 IPSASB는 최종 기준을 작성하기 전에 대안적인 표시 접근법과 개념에 대한 피드백을 수집할 수 있다. 스태프들은 태스크포스와 협의하여 CP 및 IED 개발을 진전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3단계 프로세스를 공식화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핵심 이슈 선정(IED의 내용을 검토하는 것을 기반으로 함) - 2-1단계: IED 개발(1단계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태스크포스 검토 및 IPSASB 승인을 위해 초안이 작성됨) - 2-2단계: 자문보고서 초안 개발(IED 논의 후 작성) 							

표 6 의 계속

■ 안건 8 : 재무제표 표시(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안건 항목	내용
8.2.2	재무상태표 표시 요건
	<p>[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무상태표 표시와 관련된 문제를 고려하는 데 사용된 접근 방식을 전달한다.
	<p>[배경]</p> <p>주요 재무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 재무제표' 표시를 위한 IED(예시적 공개 초안)의 요구사항 개발을 시작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는 지난 분기에 재무상태표와 관련된 표시 문제를 고려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 '기본 재무제표(주요 재무제표라고 부르기도 함)'는 주석을 제외한 IPSAS 1에서 요구하는 전체 재무제표를 의미함 스태프는 2024년 3분기와 4분기 동안 다른 주요 재무제표(예: 손익계산서 및 순자산 변동표)를 고려할 계획이다. 특히 과거의 분과 그룹 토론을 바탕으로, 손익계산서와 관련하여 몇 가지 주요 이슈를 확인하였다. 일단 IPSASB가 주요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각 재무제표에 관한 문제를 고려하면, 제안된 요구사항이 서로 다른 재무제표 구성요소 사이의 연결성과 일관성의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최종 분석이 완료된다. 이 프로젝트의 결과에는 주요 재무제표를 표시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법이나 옵션의 개발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대해 CP 및 IED의 최종 IPSASB 승인을 얻기 전에 포커스 그룹 피드백을 구할 것이다.
	<p>[재무제표의 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3년 12월, IPSASB는 공공부문 일반목적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IPSASB 개념적 프레임워크)에서 설명된 대로 공공부문에 대한 일반목적 재무보고서(GPFR)의 목적과 사용자를 기반으로 재무제표의 목적에 대한 이해를 고려했다. IPSASB는 재무제표의 목적이 보고 기업의 자산, 부채, 순자산/자본, 수익, 비용, 순자산/자본의 기타 이동, 의사 결정 및 재무제표 사용자에게 유용한 현금흐름에 대한 정보를 주는 회계책임에 대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재무제표는 보고기간 동안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현금흐름을 체계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는 공유된 경제적 특성을 기반으로 거래와 잔액을 광범위한 계층으로 그룹화하여 거래 및 기타 이벤트의 재정적 영향을 묘사한다.
	<p>[재무상태표의 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라고도 함)는 발생주의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전체 재무제표 세트의 일부를 구성하는 기본재무제표 중 하나이다. 이는 사용자가 특정 시점(일반적으로 보고기간 말)에 기업이 보유한 자산, 부채 및 순자산/자본으로 표시되는 기업의 자원과 의무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부문 발생회계의 초석이다). 재무상태표는 공공부문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다음 사항에 대한 이해를 제공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경영진이 회계실체의 자원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이행한 정도 (b) 전기에 수행된 자금활동의 결과로 발생한 부채 수준 (c) 당기 동안 지속적인 공공서비스 제공 및 자원 소비를 지원하기 위한 자원의 가용성 (d) 단기 및 장기 재정 및 서비스 제공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 (e) 인식된 자산과 부채의 잔액을 기준으로 한 회계실체의 '순자산/자본'
<p>[개선 필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프로젝트의 연구 및 범위 지정 단계에서는 공공부문 재무상태표 표시와 관련하여 특별한 우려 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국제 및 국내 기준 제정자들의 개발에 따라 여러 개선사항을 고려할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하였다. 	

표 6 의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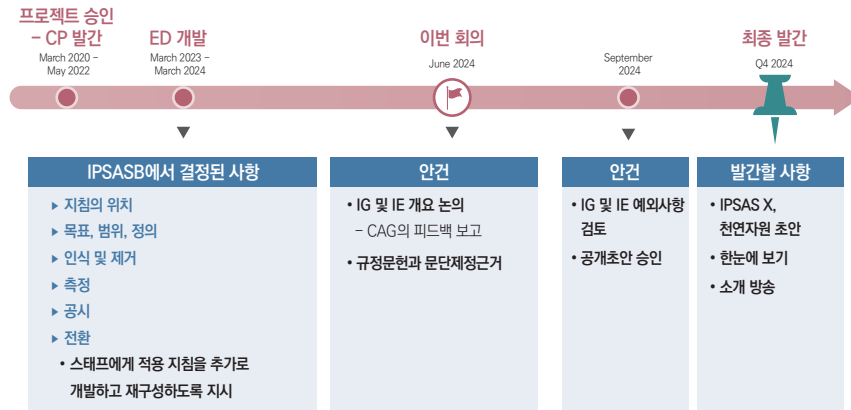
■ 안건 8 : 재무제표 표시(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안건 항목	내용
8.2.2	<p>[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테프 분석에 따르면 재무상태표에 보고된 정보는 기업의 자산, 부채 및 순자산/자본에 대해 보고함으로써 다양한 관할권 및 공공부문 실체에 걸쳐 광범위하게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명세서의 구성 방식, 자산과 부채의 분류, 소계 보고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 기존 요구사항의 개선 가능성에 대한 스테프 분석은 주로 공공부문별 사용자 요구에 대한 대응과 다음 요소의 균형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IFRS와 적절한 연계를 유지 (b) GFS와의 불필요한 차이를 줄임 (c) 공공부문 국가 기준 제정자의 관련 작업을 고려 • IPSAS 1을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IPSAS 개발에서 근본적인 질문은 요구사항이 어느 정도까지 기준화되어야 하는지와 기관별 및 국가별 고려사항을 기반으로 개발된 다양한 접근법에 대해 어느 정도의 유연성을 허용해야 하는지이다.

5) 천연자원(Natural Resources)

‘천연자원’ 프로젝트는 천연자원의 잠재적 인식 및 측정과 관련된 문제를 연구하고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2020년 3월에 프로젝트 개요가 승인된 이후, 2022년 3월에 자문보고서가 승인되어 2022년 5월 9일에 발간이 되었다. 2022년 12월에 자문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받은 이후 여러 이슈에 대한 논의와 천연자원 재무보고에 대한 공개초안 개발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5 천연자원 프로젝트 진행과정



이번 회의에서는 2024년 9월 천연자원 공개초안의 승인까지 진행될 프로젝트 계획 논의하였다. 주요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인식, 측정, 표시 및 공시에 대한 주요 원칙에 대한 방향과 해당 방향 실행에 대한 지침
 - 실행지침 및 예시 사례에 대한 자세한 개요
 - 천연자원 공개초안의 결론을 위한 규정문헌 및 문단제정근거에 대한 수정

표 7 천연자원 안건에 대한 세부사항

■ 안건 9 : 천연자원(Natural Resources)	
안건 항목	내용
	<p>실행지침 및 예시에 대한 개요</p> <p>[질문] 실행지침(IG)과 예시(IE)의 개요에 동의하고 제안된 비규정문단이 천연자원 공개초안에 위치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합니까?</p> <p>[권장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연자원 태스크포스는 부록 A에 제시된 세부 개요를 기반으로 천연자원 공개초안에 IG 및 IE 초안을 작성할 것을 권장한다. • 또한 스태프는 인식되지 않은 토지 공시에 대한 예시에 대한 위치를 IPSAS 45, 유형자산 내에서 정할 것을 권장한다.
9.2.2	<p>[분석] 실행지침 및 설명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PSASB에 현재까지 수행된 작업의 업데이트를 위해 스태프는 부록 A에 IG 및 IE의 개정된 표를 포함했다. 이 표는 2024년 3월 회의에서 제시된 버전을 기반으로 하며 IPSASB에 다음과 같은 추가 세부 정보를 업데이트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예비 실행지침 질문 및 계획된 답변의 핵심 사항 (b) 각 예시에서 설명될 예비 결론 또는 핵심 원칙 • 2024년 3월부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지침에 대해서도 업데이트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IG3 및 IG4는 이전에 제안된 하층토 자원, 물 및 생활 자원 인식에 대한 적용 지침을 기반으로 추가되었으며, 이는 목적이 변경되어 실행지침으로 재배치되었다. (b) “재야생화(Rewilding)”에 대한 실행지침을 통합하기 위해 IG8이 추가되었다. (c) 다른 IPSAS의 범위에 속하는 천연자원에 대한 정보 공시 문제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IG12가 추가되었다.

표 7 의 계속

■ 안건 9 : 천연자원(Natural Resources)

안건 항목	내용
9.2.2	<p>특정 실행지침 또는 설명예시의 위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실행지침과 설명예시가 다른 IPSAS 범위 내에 있는 항목을 다룬다. (a) 예시 IE1과 IE2는 IPSAS 45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천연자원과 그에 따른 지출을 다루고 있다. 스태프는 이러한 IE의 목적이 일부 천연자원이 ED XX의 범위 내에 있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고 참조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IPSAS 45에 이미 IPSAS 45를 적용하고 있는 구성요소는 해당 기준에서 이러한 예의 중복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b) 실행지침 IG4는 추출되지 않은 하층토 자원이 인식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다. 스태프들은 추출된 하층토 자원이 재고자산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실행지침을 IPSAS 12(재고자산)로 재배치하거나 복제할지를 고려했다. 그러나 IG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추출되지 않은 하층토 자원은 자산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없다. 더욱이 기초 자원과 분리된 이러한 하층토 자원의 추출은 자산 인식 및 IPSAS 12 적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다. 따라서 스태프는 이 IG를 재고자산 기준에 재배치하거나 복제하지 말 것을 권장한다. (c) 예시 IE3은 비교환거래로 취득한 토지의 현재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상황을 다루고 있다. 이 예는 천연자원에 관한 구성원의 피드백을 기반으로 개발되었지만 스태프는 공공부문 실체에 의해 관리되는 토지가 일반적으로 IPSAS 45의 범위 내에 있거나 특정 시나리오에서 IPSAS 16 투자부동산에서는 덜 일반적이라는 점에 주목했다(예: 토지는 IPSAS 16의 문단 12(b)에 따라 미래의 불확실한 사용을 위해 보유한다.) 그러므로 스태프는 이 사례를 IPSAS 45로 이전하고 토지가 투자부동산으로 보유된다면 IPSAS 16의 범위 내에 있을 수 있다는 주석을 추가할 것을 권장한다. (d) 실행 지침 IG11은 손상을 다루지만 IPSAS 21(현금비창출자산의 손상)과 IPSAS 26(현금창출자산의 손상)에 대한 길잡이만 다루고 있다. IE1과 IE2의 예와 유사하게, 이미 IPSAS 21이나 IPSAS 26을 적용하고 있는 구성요소는 이러한 기준에 대한 길잡이를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지침을 재배치하거나 복제할 필요가 없다. • 위 내용을 바탕으로 스태프는 IG4, IG11, IE1 및 IE2를 ED XX, 천연자원에 배치하고 IE3을 IPSAS 45에 재배치할 것을 권장한다.
9.2.3	<p>[초안] IPSAS [X] (ED XX), 천연자원에 대한 주요 개정</p> <p>[질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PSASB는 [초안] IPSAS [X] (ED XX), 천연자원에 대한 개정 제안에 동의합니까? <p>[배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 3월 회의에서 제공된 지침을 바탕으로 스태프는 규정문단과 ED XX, 천연자원의 결론도출근거를 여러번 수정했다. 스태프는 개정된 ED에 대한 IPSASB의 검토를 용이하게 하도록 변경사항을 요약하고 설명했다.

표 7 의 계속

■ 안건 9 : 천연자원(Natural Resources)

안건 항목	내용
9.2.3	<p>[분석]</p> <p>특정 의견 사항(Specific Matters for Comment, SMC)</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SMC(특정 의견 사항)가 ED의 3~4페이지에 추가되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2024년 3월 회의에서 논의한 대로 공개초안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 사용된 접근 방식에 관한 SMC 1이 추가되었다. (b) SMC 2는 공개초안의 범위 내에서 인식된 천연자원이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지며 감가상각되어서는 안 된다는 반박 가능한 가정에 대한 견해를 구하는 내용이다. (c) SMC 3은 희귀하거나 멸종 위기에 처한 천연자원의 추가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공시료를 면제하도록 질문하는 내용이다. IPSASB는 2024년 3월 회의에서 이 면제 사항을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d) 2024년 3월 회의에서 IPSASB는 기업이 전진 또는 소급적으로 ED를 적용할 수 있는 선택을 허용하는 데 동의했다. 제안을 소급하여 적용하면 특정 기간의 과거 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최초 적용일의 개시 순자산 및 누적손익은 두 접근 방식 모두에서 동일할 것으로 예상된다. SMC 4는 ED를 소급적용하는 것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구한다.
	<p>목적과 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단 1-2의 목적 섹션은 기타 유형자산에 대해 IPSAS 기준과 더욱 일치하도록 수정되었다. 또한 2024년 3월 회의 지침에 따라 3-6항의 적용범위 섹션이 간소화되었다.
	<p>측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D 범위 내의 천연자원이 비교환거래로 인식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ED의 문단 16~19에 있는 최초 측정에 대한 지침의 순서를 바꾸어 해당 섹션에서 먼저 비교환거래에 대해 간주원가(현재가치)로 측정하고 이어서 교환거래에 대해 원가로 측정하도록 했다. • 스탠프는 일관성을 위해 IPSAS 45의 교환거래에 대한 "원가의 구성" 및 "원가 측정"에 대한 지침을 초기 측정 섹션에 통합하는 것을 고려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대부분의 천연자원은 비교환거래에서 인식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ED의 지침을 반복하는 대신 IPSAS 45의 관련 문단을 참조하도록 표시하는 것을 제안한다. 해당 참조는 ED의 문단 19에서 찾아볼 수 있다. • 2024년 3월 지침에 따라 후속 측정 섹션을 수정하여 모든 천연자원에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감가상각에 대한 문단 29~39를 추가했다. 비한정 내용연수와 감가상각의 과소계상에 대한 반박 가능한 추정치는 ED 문단 29에 나와 있다.
<p>공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인식 이후 현재가치 측정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이 ED 문단 57~59에 추가되었다. 지침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ED의 문단 59는 IPSAS 45의 이러한 요구 사항에 대한 세부 고려 사항을 설명한다. 	

표 7 의 계속

■ 안건 9 : 천연자원(Natural Resources)

안건 항목	내용
적용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 3월에 지시된 바와 같이, 보존을 위해 보유하는 천연자원에 대해 제안된 지침이 통합되어 ED 문단 AG4-AG6의 적용지침으로 이전되었다. IPSAS 45의 범위 내에서 보존을 위해 보유된 천연자원과 유산 항목 사이의 잠재적 중복을 설명하기 위해 단락 AG7도 추가되었다. • 제안된 원칙의 적용 관련성으로 인해 일부 문단은 핵심 문단의 2024년 3월 버전에서 적용지침으로 이전되었다. 해당 문단에서 다룬 주제는 다음과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AG17 - 교환 거래의 신뢰성 있는 측정 (b) AG22 - 후속 비용 (c) AG23 - 천연자원을 복원하거나 재생하는 비용 (d) AG24 - 인식되지 않은 천연자원에 대한 후속 지출 (e) AG25-AG33 - 측정, 특히 현재가치 측정 기준에 대한 지침, 현재가치 모델 적용 및 감가상각 (f) AG34-35 - 인식되지 않은 천연자원의 공시



03 『2024 알기 쉬운 국가회계』 발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국가회계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자 2016년도부터 매년 『알기 쉬운 국가회계』를 발간해 오고 있다. 『알기 쉬운 국가회계』는 국민들이 국가회계기준과 발생주의 재무보고 체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포그래픽과 해설을 제공하고 있어, 국가회계 교육자료 등 다방면으로 활용되고 있다.



『알기 쉬운 국가회계』는 제1장 발생주의 회계제도 기초 다지기, 제2장 국가 회계제도 이해하기, 제3장 국가 재무제표 들여다보기, 제4장 주요 계정과목 살펴보기, 제5장 국가 재무제표 ‘더’ 들여다보기로 구성되며, 국가결산보고서에서 발췌한 국가 재무제표 본문과 국가회계실체 현황에 대한 최신 정보를 별첨으로 제공하고 있다.

『알기 쉬운 국가회계』의 올해 연례 개정판인 『2024 알기 쉬운 국가회계』에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2022년 12월에 발표한 <국가결산보고서 개편 방안>에 대한 소개가 담길 예정이다. 센터는 현금흐름표 도입, 재정상태표 및 재정운영표 간소화, 주식체계 개편 등 <국가결산보고서 개편 방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한 소개가 2025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될 새로운 국가결산보고서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전반적으로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2024 알기 쉬운 국가회계』 책자는 2024년 9월 중에 배포되며 해당 파일은 국가회계 재정통계센터 홈페이지에서 자유롭게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공개될 예정이다.



국가결산 및 교육 동향



- 2024회계연도 재무결산 중간점검 실시
- 『2024 재무결산 오류사례 해설』 발간
- 2024년 국가회계 전문교육(3~10차) 실시 결과
- 2024회계연도 국가회계전문교육 안내(재무결산실무, 국가회계의 활용)

01 2024회계연도 재무결산 중간점검 실시

기획재정부는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및 한국재정정보원과 함께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비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회계처리 적정성 여부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중간점검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① 전기오류수정손익 적정성 ② 지출금반납금의 잡이익 계상 오류 ③ 자산 취득금액의 비용처리 오류 ④ 내부거래 제거 ⑤ 건설중인 자산 적정성 ⑥ 계정과목 선택 오류(총 여섯 가지 항목)에 대하여 실시하며, 중간점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10월 8일(화) 정부세종청사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기획재정부의 국가회계 동향 및 중간점검 추진계획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하며,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의 중간점검 항목 및 점검방법에 대한 설명과 한국재정정보원의 자체점검보고서 제출방법 안내가 있을 예정이다. 또한, 각 부처 담당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이해도를 고취시키기 위해 설명회 후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각 부처 결산담당자는 설명회 내용을 바탕으로 회계·기금별로 6개 항목에 대해 자체 점검을 실시한 후 보고서를 11월 1일까지 기획재정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는 각 부처가 제출한 자체점검보고서를 취합·분석하여 부처별 점검 실적을 확인하고, 오류 조치율이 전년도 실적 미만인 기관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자체보고회의를 실시하고자 한다.

02 『2024 재무결산 오류사례 해설』 발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기획재정부 및 한국재정정보원과 함께 『2024 재무결산 오류사례 해설』을 발간한다. 이번 책자는 2023년에 발간했던 『2023 재무결산 오류사례 해설』에 2023회계연도 감사원 지적사항 등을 새로이 반영하며 이용자의 관점에서 좀 더 알기 쉽게 다듬었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결산담당자용’은 한 권으로, ‘업무담당자용’은 ‘수입·지출’과 ‘국유재산·물품’ 두 권으로 나누어 인쇄한다.

결산담당자용은 ‘감사원 지적사례 통계’와 ‘유형별 감사원 지적사례’ 및 ‘결산업무 단계별 오류사례’ 이렇게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감사원 지적사례 통계’에서는 과거 10년간(2014~2023년) 감사원 지적사례를 분석하여 유형별, 중앙관서별로 통계자료를 제시하였다.

‘유형별 감사원 지적사례’에서는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한 지적사례를 선정하여 각 유형별로 감사원 지적 발생원인과 점검 및 조치 방안을 서술하였다. 2023회계연도에 발생한 감사원 지적건수의 87%가 유형별 감사원 지적사례에 해당하므로, 결산담당자가 책자를 활용하여 2024회계연도 결산을 대비한다면 감사원 지적을 감소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결산업무 단계별 오류사례'에서는 수정 전 시산표 마감 전부터 결산서 발행까지 결산업무 단계별로 발생하는 오류 유형 및 오류 정정방법 등을 제시하여 결산담당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올해는 10년간의 각 중앙관서별 감사원 지적사항과 유형별 감사원 지적사례를 1:1로 매칭하여 부록으로 발간하였다. 이를 통해 중앙관서 결산담당자는 각 중앙관서별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적사항 파악이 쉬워져 감사원 대응이 쉬워질 것이며, 지적사례를 해결하는 방법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기 때문에 업무담당자의 책자 활용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무담당자용의 '수입·지출'과 '국유재산·물품'은 업무담당자가 재정정보시스템(dBrain+)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시킨 오류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및 오류정정 방법 등을 알기 쉽게 서술하여, 업무담당자로 인해 발생하는 재무제표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4 재무결산 오류사례 해설』은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홈페이지(<http://gafsc.kipf.re.kr>)나 재정정보시스템(dBrain+) 게시판을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다.



03 2024년 국가회계 전문교육(3~10차) 실시 결과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지난 3분기 동안 국가회계 전문교육 3~10차수를 개최하였다. 올해는 집합교육을 기본으로 전국 6개 주요 도시(서울(3회), 대구, 대전, 부산, 광주, 세종(2회))에서 9회차의 과정을 진행하며, 추가적으로 각 과정당 1차수를 실시간 비대면 온라인 방식(총 4회차)으로 병행 운영한다. 또한 올해는 기존의 '수목금'으로 진행하였던 교육 일정을 '화수목'과 '수목금'의 두 가지 일정으로 병행 운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다양한 교육 방식을 시도하고 있다.

각 과정은 차수별로 국가회계이론과정 2일, 국가회계실무과정 1일 등 총 3일의 교육과정으로 진행되었다. 국가회계이론과정 1일차에는 강원대학교의 정광화 교수, 순천대학교의 엄기중 교수, 안동대학교의 임채창 교수, 한길회계법인의 김상노 회계사가 차수별로 회계원리와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기초에 대해서 국가회계를 처음 접하는 대상자들이 알기 쉽게 설명하였으며, 이어서 진회계법인의 이재혁 회계사, 이촌회계법인의 방민식 회계사가 국가회계제도의 주요 체계와 발생주의 국가회계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였다. 2일차에는 이정회계법인의 허웅 회계사가 세입세출거래와 복식부기, 결산조정과 발생주의에 관한 내용을 전달하고, 마지막으로 2일간의 전체 교육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종합사례연습을 진행하며 수강생들의 이해도를 향상 시켰다.

3일차인 국가회계실무과정의 첫 번째 과정은 수입·지출(1, 2, 3, 5, 6, 8, 9차)과 국유·물품(4, 7, 10차)으로 구분하여 각 담당자가 업무를 진행하면서 겪을 수 있는 오류사례를 미리 점검하고 해결방안에 대해서 다양한 사례를 경험한 센터 소속 회계사들이 나누어 강의를 진행하였다. 이어서 마지막 과정은 '국가재무제표 들여다 보기'라는 주제로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회계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와 그동안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국가재무제표를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성삼경회계법인의 모원수 회계사와 창의회계법인의 이진관 회계사가 내용을 정리하여 강의하며 전체 교육이 마무리되었다.

04 2024회계연도 국가회계전문교육 안내(재무결산실무, 국가회계의 활용)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2024회계연도 국가재무결산을 앞두고 오는 10월에 중앙부처 재무결산 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재무결산실무 과정을 실시한다.

본 과정은 재무결산 절차 및 유의사항 등 교육을 통해 2024회계연도 재무결산 업무 수행에 있어 제기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교육 참석자는 본 교육을 통해 올해 국가결산의 방향과 주요 오류사항에 대한 처리방법 등을 학습하게 된다. 교육 1일차에는 '① 재무결산의 이해 ② 2024회계연도 재무결산 주요 유의사항 ③ 감사원 지적사례'를, 2일차에는 '① 내부거래실무 ② 결산 조정분개 ③ 결산보고서 작성'에 대하여 강의할 예정이다.

교육 강사로는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본 센터 결산교육팀 연구진이 참여한다. 결산교육팀은 국가결산 업무와 국가회계교육 사업을 중점 추진하기 위해 2018년도에 신설된 조직으로서, 발생주의·복식부기 국가회계제도의 시행 초기부터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가회계교육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회계이론 과정의 증급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회계의 활용 과정도 실시한다. 해당 과정은 발생주의 재무정보의 정책적 활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과정으로 국가회계이론을 사전에 수강하고 해당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권장한다.

올해는 집합교육 방식과 실시간 비대면 온라인 교육 방식을 병행하여 과정을 구성하였다. 재무결산실무는 2개 차수가 집합교육(세종)과 비대면 방식으로 각 2일간, 국가회계의 활용 과정은 1차수가 비대면 방식으로 1일간 진행된다. 국가회계 전문교육의 교육 과정들은 국가회계교육 홈페이지(www.kipf.re.kr/edu/)에서 신청할 수 있다.

표 1 재무결산실무 과정 일정

지역	일정	시간	교육방식/장소	정원
세종	10. 17.(목) ~ 10. 18.(금)	10:00 ~ 17:30	정부세종컨벤션센터	100명
무관	10. 23.(수) ~ 10. 24.(목)	10:00 ~ 17:30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120명

표 2 재무결산실무 과정 커리큘럼

일자	교육과목	시간	주요 내용
1일차	재무결산의 이해	1.5	1.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의의와 도입과정
			2. 국가회계제도의 이해
	2024회계연도 재무결산 주요 유의사항	2.0	3. 국가재무제표의 이해
4.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2일차	감사원 지적사례	2.5	1. 재무결산 주요 유의사항
			2.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연계
2일차	내부거래실무	1.5	3. 재무정보 조회 및 점검 방법
			4. 수정전시산표 마감전 유의사항
			1. 감사원 지적사례 통계
2일차	결산조정분개	2.0	2. 주요 감사원 지적사례
			1. 내부거래의 의의
			2. 내부거래 제거 방식
2일차	결산보고서 작성	2.5	3. 결산담당자 유의사항 및 처리방법
			1. 국가회계 결산조정분개의 이해
			2. 결산조정분개 오류사례
2일차	결산작성지침 개요	2.5	1. 결산작성지침 개요
			2. 결산보고서 생성
			3. 결산보고서 발행

표 3 국가회계의 활용 과정 일정

지역	일정	시간	교육방식	정원
무관	10. 30.(수)	10:00 ~ 17:00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100명

표 4 국가회계의 활용 과정 커리큘럼

일자	교육 과목	시간	주요 내용
1일차	국가회계정보와 결산보고서	1.0	1. 국가결산보고서의 구성
			2. 정보로서의 국가결산보고서의 이해
	프로그램세출과 프로그램원가, 그리고 재정운영표의 해석	3.0	1. 국가회계에서 원가계산의 의미
2. 프로그램세출 정보			
1일차	자산, 부채, 그리고 재정상태표의 해석	2.0	3. 프로그램세출과 프로그램원가의 관계
			4. 프로그램 원가정보의 특성 및 활용방안
			5. 재정운영표의 이해
1일차	자본, 부채, 그리고 재정상태표의 해석	2.0	6. 종합사례
			1. 재정상태표 개념과 의의
			2. 자산구성: 금융자산과 서비스자산
1일차	부채구성: 금융부채와 총당부채	2.0	3. 부채구성: 금융부채와 총당부채

국가회계
재지토계



재정통계 동향



- 「2025년 예산안」 편성 및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제출
- 「'24~'28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제출
- IMF GFSM 2014 개정 계획 발표

01 「2025년 예산안」 편성 및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제출

가. 「2025년 예산안」 편성

기획재정부는 2024년 8월 27일 (화)에 「2025년 예산안」을 발표하였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기본 방향은 국민이 원하는 민생과제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미래 도약을 위한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와 사회구조 개혁에 중점을 두면서 재정운용 혁신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4대 투자중점 분야에 집중할 계획이다.

투자 중점	내용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자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더 두텁고 더 넓은 기초생활보장 • 노인·장애인·취약아동 맞춤형 보호 • 일자리를 통한 취약계층 도약 지원 • 교육·주거 사다리 구축과 문화격차 해소
경제활력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상공인 전주기 맞춤형 지원 • 농어민 소득 확충 및 농수산물 물가 안정 • 선도형 R&D 개혁과 첨단산업 육성 • 수출모멘텀 확산과 중소·벤처기업 스케일업
미래를 준비하는 체질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가정양립·돌봄·주거지원으로 저출생 대응 • 필수의료 확충·지역의료 복원 • 청년의 힘찬 미래도약 지원 • 인재·산업·교통 혁신으로 지방시대 뒷받침
안전한 사회·글로벌 중추 외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유형·고강도 재해에 대한 체계적 예방과 대응 • 첨단·과학수사와 국민 권리구제 강화 • 군 자긍심 고취와 강한 군대 육성 • 전략적 외교·ODA로 국익 창출

출처: 기획재정부, 「2025년 예산안」

1) 재정 총량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총수입 중 국세수입은 금년 기업실적 호조, 내년 대내외 여건의 완만한 회복흐름으로 전년 대비 15.1조원(4.1%) 증가하고, 세외수입은 사회보장성기금 수입 증가 등으로 24.5조원(10.0%) 증가하여 총수입은 전년 대비 39.6조원(6.5%) 증가한 651.8조원으로 전망된다.

총지출 중 의무지출은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인한 연금구조로 복지분야 지출과 국채이자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8.2조원(5.2%) 증가하고, 재량지출은 4대 중점투자 분야 재정투자 지속과 재정운용 혁신 노력(현장수요 중심, 다부처 협업, 지출효율화 등) 병행으로 2.6조원(0.8%) 증가하여 총지출은 전년 대비 20.8조원(3.2%) 증가한 677.4조원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각각 $\Delta 1.0\%$, $\Delta 2.9\%$ 로 전년 대비 각각 0.8%p, 0.7%p 증가해 재정적자 축소가 예상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8.3%로 전년 대비 0.8%p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 2025년 재정운용 모습

(단위: 조원, %)

구분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B-A)	%
◇ 총수입	612.2	651.8	39.6	6.5
- 국세수입	367.3	382.4	15.1	4.1
- 세외수입	244.9	269.4	24.5	10.0
◇ 총지출	656.6	677.4	20.8	3.2
- 의무지출	347.4	365.6	18.2	5.2
- 재량지출	309.2	311.8	2.6	0.8
◇ 통합재정수지	$\Delta 44.4$	$\Delta 25.6$	18.8	
(GDP 대비)	$(\Delta 1.8\%)$	$(\Delta 1.0\%)$	(0.8%p)	
◇ 관리재정수지	$\Delta 91.6$	$\Delta 77.7$	13.9	
(GDP 대비)	$(\Delta 3.6\%)$	$(\Delta 2.9\%)$	(0.7%p)	
◇ 국가채무	1,195.8	1,277.0	81.3	
(GDP 대비)	(47.4%)	(48.3%)	(0.8%p)	

출처: 기획재정부, 「2025년 예산안」 중 '25년 예산안 전체모습을 바탕으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 의무·재량 지출 추가 작성. 의무·재량지출은 기획재정부,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내용」 중 '재정지출' 참조

2) 분야별 자원배분

「2025년 예산안」에서는 12개 분야별 자원배분을 하였고 주요 분야별 예산 증감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2 분야별 자원배분 모습

(단위: 조원, %)

구분	2024년 예산(A)	2025년 예산안(B)	증감(B-A)	증감률(%)
◆ 총지출	656.6	677.4	20.8	3.2
1. 보건·복지·고용	237.6 ¹⁾	249.0	11.4	4.8
2. 교육	95.2 ¹⁾	98.5	3.3	3.5
3. 문화·체육·관광	8.7	8.8	0.1	1.3
4. 환경	12.5	13.0	0.5	4.0
5. R&D	26.5	29.7	3.2	11.8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8.0	28.3	0.3	1.1
7. SOC	26.4	25.5	△0.9	△3.6
8. 농림·수산·식품	25.4	25.9	0.5	1.9
9. 국방	59.4	61.6	2.2	3.6
10. 외교·통일	7.5	7.8	0.3	3.7
11. 공공질서·안전	24.4	25.1	0.7	2.6
12. 일반·지방행정	110.5	111.3	0.8	0.6

주: 1) 유보통합에 따라 '24년 보육사업 예산을 복지분야에서 교육분야로 이관한 후의 규모
출처: 기획재정부, 「2025년 예산안」

12개 분야 중 2024년 예산 대비 2025년 예산안 증감률이 큰 6개 분야를 살펴보면, 먼저 R&D 분야는 기술패권 경쟁력 강화, 수월성 중심 기초연구 지원과 젊은 과학자 연구환경 조성, 글로벌 공동연구를 위해 전년 대비 지출이 11.8%(26.5조→29.7조) 증가했다.

보건·복지·고용 분야에서는 저소득층·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3대(일·가정 양립, 양육·돌봄, 주거) 출생장벽 완화에 집중 투자, 필수·지역의료에 대한 재정투자 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전년 대비 지출이 4.8%(237.6조→249.0조) 증가했다. 증가는 주로 국민연금급여·노인기초연금 지급, 모성보호 육아지원,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수급 관리 등에 기인한다.

환경 분야는 녹색산업 육성 및 탄소저감·공정전환으로 녹색경제 전환 촉진, 기후 위기에 따른 홍수예방,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확보, 체계적 폐기물 관리 및 화학 안전·환경보전 등 환경서비스 강화를 위해 전년 대비 지출이 4.0%(12.5조→13.0조)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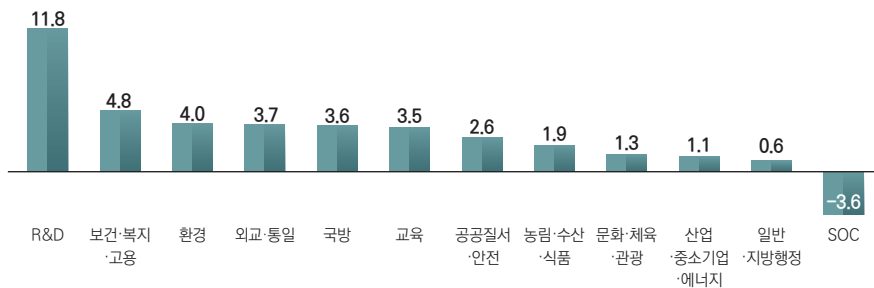
외교·통일 분야는 ODA 확대기조를 유지하되(6.3조→6.7조) 우리 기업·청년 진출을 통한 국익 극대화, 20년 만에 한국에서 개최되는 2025 APEC 정상회의 및 한-중앙 아시아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지출이 3.7%(7.5조→7.8조) 증가했다.

국방 분야는 병 봉급 약속 이행(+0.8조), 군 간부 주거시설 지속 확충 등 군복무를 위한 처우개선, 의료 및 장비 보강 등을 위해 전년 대비 지출이 3.6%(59.4조→61.6조) 증가했다.

교육 분야는 장학금 확대(+0.6조)를 통한 전 생애에 걸친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교육 격차 해소, 의대증원 관련 소요를 포함해 대학 인프라 지원 강화, 지역·대학 협력체계 개편(RISE 본격 시행 +0.8조)으로 미래 핵심분야 인재양성 등을 위해 전년 대비 지출이 3.5%(95.2조→98.5조) 증가했다.

그림 1 분야별 증감률

(단위: %)



출처: 기획재정부, 「2025년 예산안」 중 <분야별 자원배분 모습>을 바탕으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 작성

나.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제출

기획재정부는 2024년 8월 27일 (화)에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고 국회에 제출하였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당해 회계연도 포함 5개 회계연도에 대해 재정운용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재정운용 계획으로 재정의 역할과 함께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한다.

1)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

재정수입은 기업실적 호조와 대내외 여건 개선 등에 따라 2024년 612.2조원(국회 확정예산 기준)에서 2028년 731.5조원으로 연평균 4.6% 증가할 전망이다.

재정지출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복지지출, 국채이자 등 의무지출 증가세가 지속되어 2024년 656.6조원(국회 확정예산 기준)에서 2028년 756.2조원으로 연평균 3.6% 증가할 전망이다.

통합재정수지는 2024년 GDP 대비 $\Delta 1.8\%$ 에서 2028년에는 $\Delta 0.8\%$ 수준으로 적자폭이 지속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역시 2024년 $\Delta 3.6\%$ 에서 2028년에는 $\Delta 2.4\%$ 수준으로 적자폭이 축소될 전망이다.



국가채무는 2028년까지 GDP 대비 50% 수준에서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총량은 다음과 같다.

표 3 2024~2028년 중기 재정총량

(단위: 조원, %)

구분	2024년 ¹⁾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재정수입	612.2	651.8	677.7	706.4	731.5
재정지출	656.6	677.4	704.2	730.3	756.2
통합재정수지	△44.4	△25.6	△26.6	△23.9	△24.7
(GDP 대비, %)	△1.8	△1.0	△1.0	△0.8	△0.8
관리재정수지	△91.6	△77.7	△75.8	△73.1	△72.2
(GDP 대비, %)	△3.6	△2.9	△2.7	△2.5	△2.4
국가채무	1,195.8	1,277.0	1,353.9	1,432.5	1,512.0
(GDP 대비, %)	47.4	48.3	49.1	49.8	50.5

주: 1) 국회 확정예산 기준

출처: 기획재정부,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4. 9.,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편집

2) 전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 대비 변동원인 분석

재정수입은 2024년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며 당초 2023~2027년 계획상 예측경로(연평균 증가율 3.7%) 대비 연평균 증가율이 증가할 것으로(연평균 증가율 4.6%) 기대된다.

재정지출은 2024~2028년 기간 중 연평균 3.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전년도 계획에서 제시한 2023~2027년 5개년 평균 증가율 3.6%과 동일한 수준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전년 계획 대비 2024~2028년 계획상 재정지표가 다소 악화될 전망이다. 재정여건 변동에 따른 중기 재정 총량 전망의 변화는 다음 표와 같다.

표 4 중기 재정총량 전망 비교

(단위: 조원, %)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연평균 증가율
재정 수입	'23~'27년 계획 (증가율)	625.7 (13.0)	612.1 (△2.2)	661.5 (8.1)	692.0 (4.6)	722.3 (4.4)	- -	3.7
	'24~'28년 계획 (증가율)	- -	612.2 (△2.2)	651.8 (6.5)	677.7 (4.0)	706.4 (4.2)	731.5 (3.6)	4.6
재정 지출	'23~'27년 계획 (증가율)	638.7 (5.1)	656.9 (2.8)	684.4 (4.2)	711.1 (3.9)	736.9 (3.6)	- -	3.6
	'24~'28년 계획 (증가율)	- -	656.6 (2.8)	677.4 (3.2)	704.2 (4.0)	730.3 (3.7)	756.2 (3.5)	3.6
통합 재정 수지	'23~'27년 계획 (GDP 대비)	△13.1 (△0.6)	△44.8 (△1.9)	△22.9 (△0.9)	△19.2 (△0.7)	△14.6 (△0.5)	- -	
	'24~'28년 계획 (GDP 대비)	- -	△44.4 (△1.8)	△25.6 (△1.0)	△26.6 (△1.0)	△23.9 (△0.8)	△24.7 (△0.8)	
관리 재정 수지	'23~'27년 계획 (GDP 대비)	△58.2 (△2.6)	△92.0 (△3.9)	△72.2 (△2.9)	△69.5 (△2.7)	△65.8 (△2.5)	- -	
	'24~'28년 계획 (GDP 대비)	- -	△91.6 (△3.6)	△77.7 (△2.9)	△75.8 (△2.7)	△73.1 (△2.5)	△72.2 (△2.4)	
국가 채무	'23~'27년 계획 (GDP 대비)	1,134.4 (50.4)	1,196.2 (51.0)	1,273.3 (51.9)	1,346.7 (52.5)	1,417.6 (53.0)	- -	
	'24~'28년 계획 (GDP 대비)	- -	1,195.8 (47.4)	1,277.0 (48.3)	1,353.9 (49.1)	1,432.5 (49.8)	1,512.0 (50.5)	

주: '24~'28계획 : (2024년) 국회 확정 기준

출처: 기획재정부,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3.;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4. 바탕으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작성

3)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내용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절차, 대내·외 경제 여건 및 재정운용 여건, 재정운용의 방향뿐만 아니라 12대 분야별 투자방향과 재정혁신 방향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중 재정혁신 추진방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출 재구조화

의무지출 등 재정소요 확대에 대응하여 재정여력을 확보하고, 재정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한다. 또한, 재정운용 전 과정에서 조세·재정지출 간 통합·연계관리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조세지출도 재정지출과 같이 12대 분야로 연계·관리하고 dBrain+을 통한 통합관리 기반을 구축한다.

② 재정운용 효율화

민간의 창의·재원을 활용하여 사회기반시설을 적기 구축하기 위해 새로운 민간투자 사업 대상시설을 적극 발굴하고 민간투자 활성화를 지원한다. 또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 유휴 국유지 활용, 지자체 수요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해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증진한다. 그리고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국고보조금 부정징후 모니터링 및 합동 보조금 집행점검 강화 등 보조금 관리체계를 개편한다. 또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조세지원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비과세·감면을 정비하며 조세회피를 관리하여 세입 누수 요인을 차단할 계획이다.

③ 재정제도 혁신

R&D 투자시스템을 개혁하고, 부담금 관리체계를 강화하며, 국가결산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다. 국가계약제도와 관련하여 수수료 경감 등 경제적 부담완화 및 서류 제출 부담 경감 등을 통해 계약제도의 합리성과 유연성을 제고하여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혁신·신사업 지원과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도모한다. 또한, 공공조달의 역할 및 관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공공조달법 제정을 추진한다. 그리고 국채시장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국채시장을 선진화할 계획이다.

④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추진한다. 또한 경제·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중장기 재정여건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제3차 장기재정전망을 2025년도에 실시할 예정이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및 재무위험기관의 재정건전화 수정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 공공기관의 재무위험관리를 강화하는 등 공공기관의 재정건전화를 도모한다.

02 「2024~2028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제출



가. 2024~2028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 전망

기획재정부는 「2024~2028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국가재정법」에 따라 9월 2일 (월)에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번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은 공공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투자 이행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부채비율 안정화 목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되었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의 대상 기관은 총 35개⁹⁾로 전년과 동일하며, 기관별로 향후 5년간의 경영 목표와 투자방향, 연도별 자산 및 부채규모 등의 재무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2024~2028년 기간 중 35개 기관의 자산은 국가 인프라 확충 등으로 171.9조원 증가한 1,212.4조원으로 전망하였고, 부채는 93.1조원 증가한 795.1조원으로 전망하였다. 한편 국제 에너지 가격 안정화 등 대외환경 개선과 재정건전화 수정제

9) 자산 2조원 이상 혹은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의무)이 있는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대상으로 전년과 동일

획¹⁰⁾ 등 재정건전화 노력을 통해 부채비율은 16.8%p 하락한 190.5%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자산 171.9조원 증가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토지주택공사·도로공사 등의 공공(임대) 주택 공급 확대 및 고속도로 투자로 인해 SOC 분야에서 111.6조원, 송배전설비 및 원전건설 확대 등으로 인한 에너지 분야에서 26.7조원, 자산관리공사(새출발기금), 주택금융공사(보급자리론) 정책금융 확대 등으로 인해 금융 분야에서 28.0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부채 93.1조원 증가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의 영향으로 SOC 분야에서 75.7조원, 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정책금융 확대 등으로 금융 분야에서 11.2조원이 증가하고, 한국전력공사 영업이익 개선 및 가스공사의 미수금 회수 등으로 에너지 분야의 경우 2.9조원 증가¹¹⁾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였다.

표 1 전체 기관(35개) 자산, 부채, 부채비율 실적(2023년) 및 전망(2024~2028년)

(단위: 조원)

구분		2023년 (실적)	2024년 (A)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B)	증감 (B-A)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 수립 대상 (35개)	자산	980.6	1,040.6	1,095.6	1,139.0	1,185.4	1,212.4	171.9
	부채	664.1	701.9	735.8	752.4	773.2	795.1	93.1
	부채비율	209.8%	207.3%	204.5%	194.6%	187.6%	190.5%	△16.8%p

출처: 기획재정부, 「'24~'28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보도자료, 2024. 9. 2. 바탕으로 국가회계재정 통계센터 작성

나. 부채규모 및 부채비율 지난해 계획 대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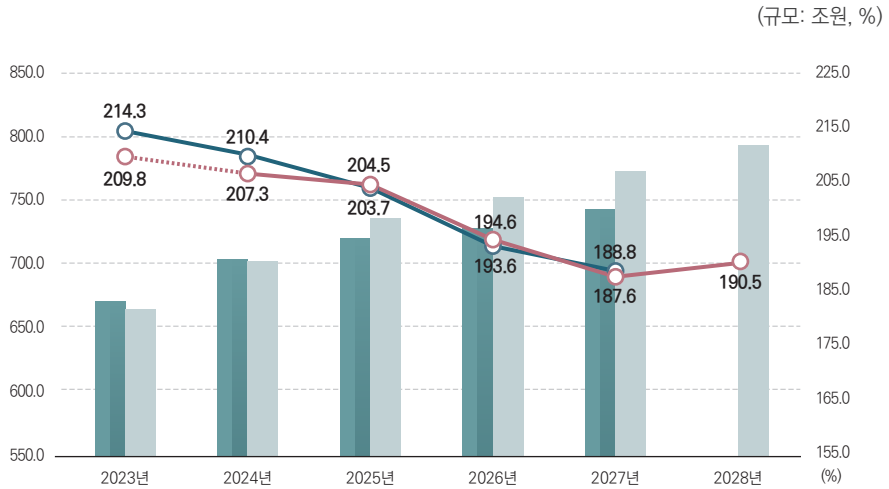
전년도 계획('23~'27년) 대비 올해 계획('24~'28년)의 부채규모는 증가하였으나 부채비율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비율은 2024년 기준 3.1%p 하락했으나 이후 연도에서 △1%p~1%p 내외의 차이를 보였다. 주택시장 활성화 노력, 에너지 시장 불확실성, 회계적 요인 등 부채상승 압력이 존재하긴 하나, 재정건전화 등을 통해 상승세를 억제할 전망이다. 전년도 계획과 동일하게 올해 계획에서도

10) 2022년에 지정된 한국전력공사 등 14개 재무위험기관의 42.2조원 규모의 「'22~'26년 재정건전화계획」에 신규 15.1조원의 자구노력을 발굴하여 '22~'26년간 총 57.3조원의 재정건전화 수정계획을 마련

11) 부채의 절대적 규모는 증가하나 에너지 분야 부채비율은 △168.4%p 감소할 것으로 전망

부채비율의 추세는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2028년에는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2028년 예보채 상환기금 청산에 따른 자본감소에 기인한다.

그림 1 전체 중장기 대상기관 부채 규모·비율 전년도 계획과 비교



출처: 기획재정부, 「2024~2028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보도자료, 2024. 9. 2. 바탕으로 국가회계 재정통계센터 작성

다. 향후 추진계획

기획재정부는 기관의 중장기재무관리 계획 변동사항과 부채 감축 노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재무위험기관의 재정건전화 계획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등 재정건전화 및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과 이행을 관리하며, 동시에 공공기관 재무관리 노력을 경영평가에 강화하여 반영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재무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03 IMF GFSM 2014 개정 계획 발표



1. 배경

GFSM 2014는 IMF에서 제정한 국제 통계 기준으로서, 재정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재무 통계작성 및 그 분석 방식을 제공해 오고 있다. 이 매뉴얼은 2008 SNA 및 BPM6와 같은 여타 다른 거시경제 통계 기준과 개념 및 정의 측면에서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동일한 회계 기준과 개념을 사용하지만, SNA와 GFSM의 목적 차이로 인해 일부 개념적 및 보고상의 차이는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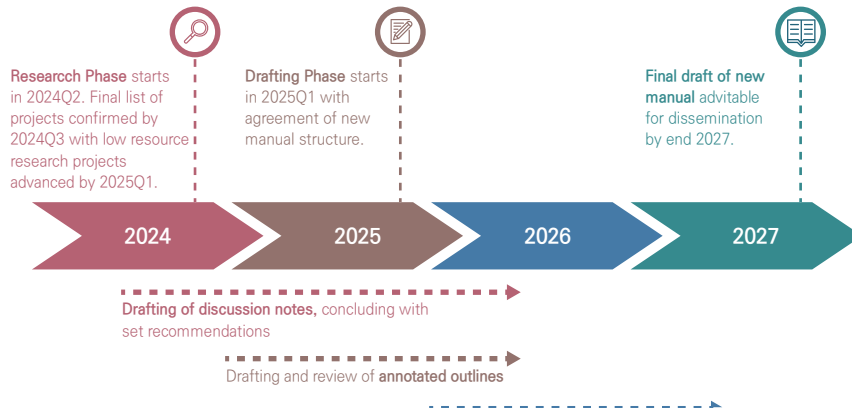
현재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 상황에서 재정정책의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혹은 관련 정책이 변화하면서 새로운 경제 현상에 적응할 수 있는 국제 통계 기준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통계 지침이 제공된 사례가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GFSM 2014도 변화한 환경 및 다른 통계 기준과의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재 2008 SNA와 BPM6는 유엔 통계위원회(UNSC)와 IMF 통계부서(STA)를 주도로 하여 2020년 3월 개정을 시작하였으며, 2025년 3월에 완료할 예정이다. 해당 기준의 개정은 GFSM 2014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IMF의 정부 재무 통계 자문 위원회(GFSAC)는 국제 통계 기준 업데이트 과정에서 GFSM 관계자들의 효과적인 참여를 위해 전략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GFSM 2014는 두 가지 주요 목표를 설정하였다:

1. 타 국제 기준과의 조화: 2008 SNA와 BPM6의 개정을 고려하여 공통지침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어떠한 변화가 GFS와 재정분석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지침 제공
2. 사용자의 요구 충족: 현재 지침이 미비한 상황이거나 변화하는 재정정책을 적절히 측정 및 보고하지 못하는 경우, 새로운 지침을 수립하고 기존 지침을 수정하여 분석에 필요한 방안 마련

그림 1 GFSM 개정 계획 개괄



출처: IMF Government Finance Division Global Consultation, "Proposed Process and Timeline for Updating the GFSM 2014"

2. 개정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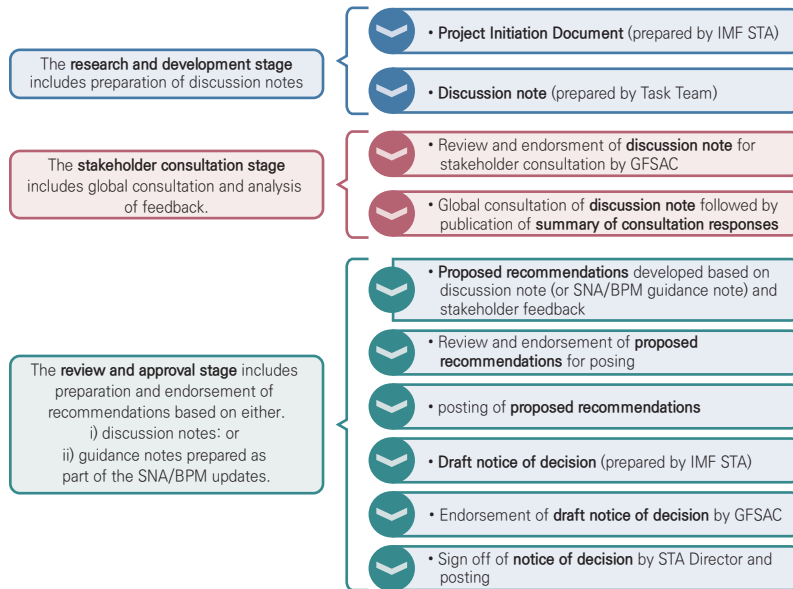
GFSM 2014의 개정은 연구 주제 선정 및 초안 작성 두 단계로 나누어 진행되며, 2027년 4분기에 완료될 예정이다.

i 연구 주제 선정 단계: GFSM 2014 개정 사항에 관한 연구 주제를 개발하고 발 전시키는 데 중점을 두며, 이에 대한 의견은 글로벌 자문을 통해 수렴된다. 2024년

4월 논의 후, 회원국으로부터 받은 방법론적 문의 등을 기반으로 한 연구 주제들이 GFSAC의 승인을 받은 상태이며, 보다 많은 사용자층으로부터의 의견을 요청하고 있다. 이후 해당 내역을 바탕으로 권고안을 준비할 예정이며, 최종 결정은 GFSAC의 승인 후 공표된다.

연구 주제는 새로운 재정 동향으로 인한 통계 사용자의 요청, 다른 통계 기준과의 일관성, 재정정책 분석 및 결정의 지원 가능성, 많은 국가들과의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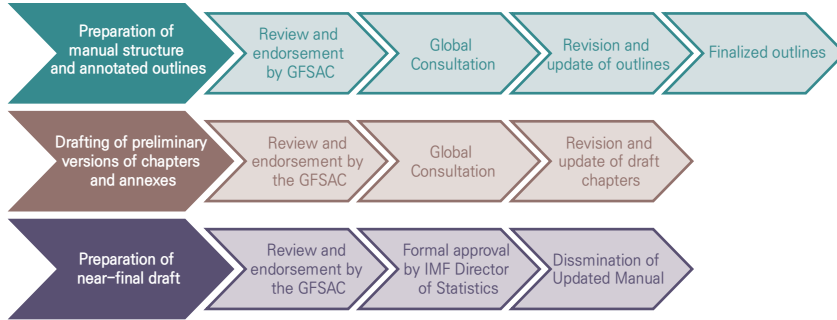
그림 2 연구 주제 선정 단계 개괄



출처: IMF Government Finance Division Global Consultation, “Proposed Process and Timeline for Updating the GFSM 2014”

ii 초안 작성 단계: 실제로 지침 초안을 구성하는 단계이며, 연구 단계의 권고 사항을 바탕으로 관련 본문 및 부록을 작성한다. 본격적 지침 개발 전에 전반적인 구조의 개요를 마련하여 GFSAC의 승인을 받아 본문 및 부록을 준비하게 된다. 이후 다른 국가 및 기타 국제기구와 공유하여 협의 및 피드백의 과정을 거쳐 2027년에 완성될 예정이며, 최종안은 GFSAC의 검토 및 동의를 받은 후 IMF 통계부 국장의 공식 승인을 받아 배포되게 된다.

그림 3 초안 작성 단계 개괄



출처: IMF Government Finance Division Global Consultation, "Proposed Process and Timeline for Updating the GFSM 2014"





공기업·준정부기관 공익법인회계 동향



- 2023회계연도 준정부기관 결산결과 분석
- 2024년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9~11월) 안내
- 2022년 공익법인 재무현황

01 2023회계연도 준정부기관 결산결과 분석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정으로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된다.

이 중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는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에 따라 경영성과와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를 발생사실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43조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에 따라 회계처리 및 결산을 수행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운영법」 제43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결산서를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국회에 제출된 결산서를 바탕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포함한 52개 준정부기관에 대한 2023회계연도 결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준정부기관의 재무상태

준정부기관의 자산 및 부채의 5개년 추세는 다음과 같다.

그림 1 준정부기관 자산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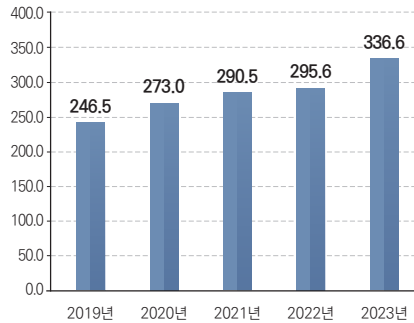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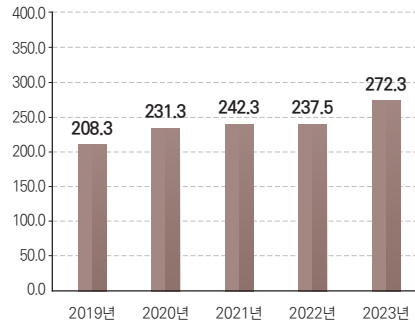


그림 2 준정부기관 부채

(단위: 조원)



주: 준정부기관 대상 변동 및 회계기준 변경 등으로 재무제표가 재작성되어 전년도에 국회에 제출한 결산서와 일부 차이가 발생함

출처: 기획재정부, 「준정부기관 결산서」,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작성

2023년 준정부기관의 자산은 336.6조원(전년 대비 41.0조원, 13.9%↑)이다. 총자산 변동액 중 66.8%(27.4조원)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자산변동에 따른 것으로 정책 모기지 공급에 따른 대출채권의 증가 및 현금및예치금의 증가 등이 주요 증가 요인이다. 한편 2023년 기준 준정부기관 총자산의 56.1%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14.6%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차지하고 있다.

2023년 준정부기관의 부채는 272.3조원(전년 대비 34.9조원, 14.7%↑)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유동화부채(MBS, MBB) 발행 증가 및 차입부채 증가 등으로 26.9조원이 증가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 수가 인상 영향 및 팬데믹 증식으로 인한 의료 이용 회복세에 따른 총당부채 증가 등으로 4.2조원이 증가하였다.

나. 준정부기관의 재무성과

준정부기관의 영업수익 및 당기순이익의 5개년 추세는 다음과 같다.

그림 3 준정부기관 영업수익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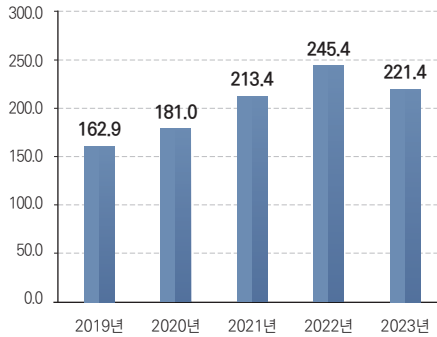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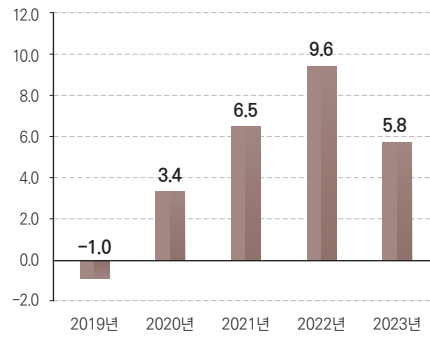


그림 4 준정부기관 당기순이익

(단위: 조원)



주: 준정부기관 대상 변동 및 회계기준 변경 등으로 재무제표가 재작성되어 전년도에 국회에 제출한 결산서와 일부 차이가 발생함

출처: 기획재정부, 「준정부기관 결산서」,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작성

준정부기관의 영업수익은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23년 24.0조원 감소하였다. 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 등 수탁사업의 종료로 수탁사업수익으로 인한 영업수익 감소의 영향이 크다(2022년 42.0조원, 2023년 1.3조원으로 40.7조원 감소).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율 인상(1.49%↑) 및 보수월액 증가(4.7%↑) 등에 따른 보험료 수익 증가 등으로 영업수익이 7.3조 증가하였다(2022년 113.8조원, 2023년 121.1조원으로 7.3조원 증가).

준정부기관의 당기순이익은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23년 전년 대비 3.8조원 감소한 5.8조원을 기록하였다. 당기순이익 변동의 주된 원인은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의료서비스 이용의 증가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당기순이익이 감소한 영향이 크다.(2022년 6.5조원, 2023년 3.0조원으로 3.6조원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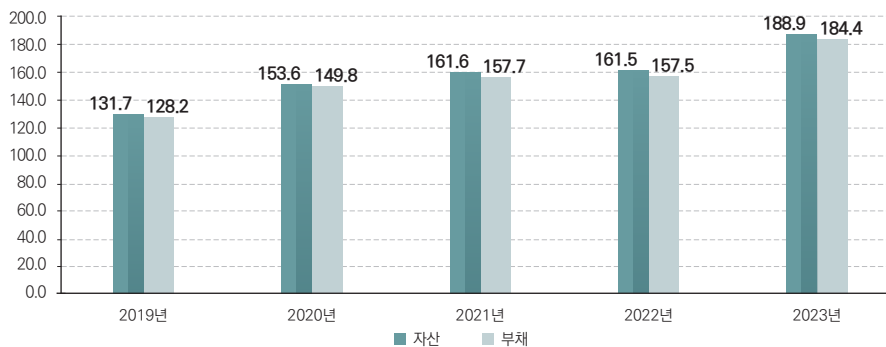
다. 주요 준정부기관 증감 분석

1) 한국주택금융공사

2023회계연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자산은 188.9조원, 부채는 184.4조원으로 준정부기관 총자산 중 56.1%, 총부채 중 67.7%를 차지하고 있다. 자산과 부채의 과거 5개년 추세는 다음과 같다.

그림 5 자산·부채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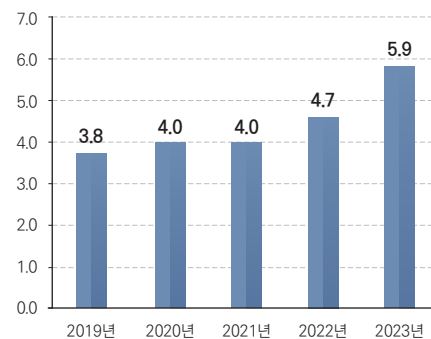


출처: 기획재정부, 「준정부기관 결산서」,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작성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정책모기지 공급에 따라 대출채권의 증가 및 현금및예치금의 증가 등으로 자산이 증가하였다. 부채는 유동화부채(MBS, MBB) 발행 증가 및 차입 부채의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그림 6 영업수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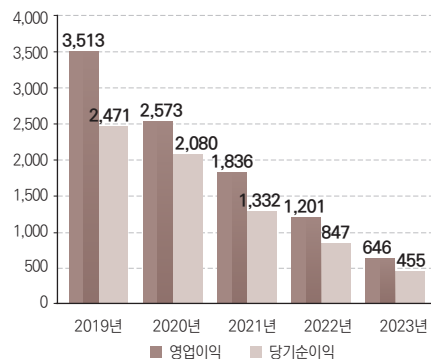
(단위: 조원)



출처: 기획재정부, 「준정부기관 결산서」,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작성

그림 7 영업이익·당기순이익

(단위: 조원)



출처: 기획재정부, 「준정부기관 결산서」,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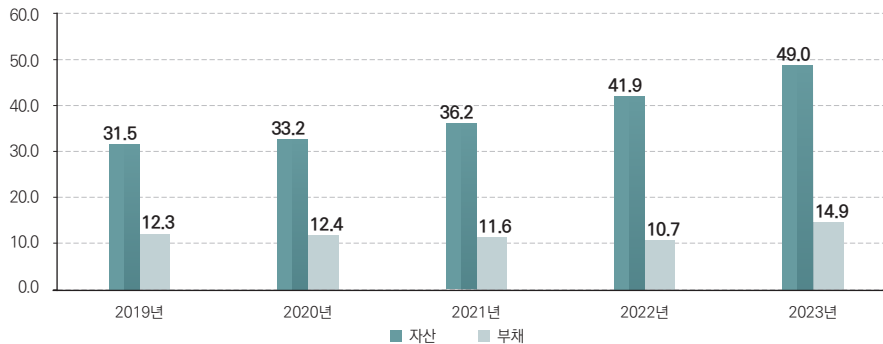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담보대출 확대에 따른 대출채권 이자 및 수수료 수익의 증가와 파생 관련 이익의 증가로 영업수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MBS·MBB 발행량 확대에 따른 이자 및 수수료비용 또한 동시에 늘어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감소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

2023회계연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산은 49.0조원, 부채는 14.9조원으로 준정부기관 총자산 중 14.6%, 총부채 중 5.5%를 차지하고 있다. 자산과 부채의 과거 5개년 추세는 다음과 같다.

그림 8 자산·부채

(단위: 조원)



출처: 기획재정부, 「준정부기관 결산서」,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작성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수입 확대 및 여유자금 운용의 영향으로 자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부채는 건강보험급여비 조기지급에 따른 보험급여충당부채 감소로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023년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의료서비스 이용 증가 및 보험급여 수가인상 영향에 따라 충당부채 등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다.

그림 9 영업수익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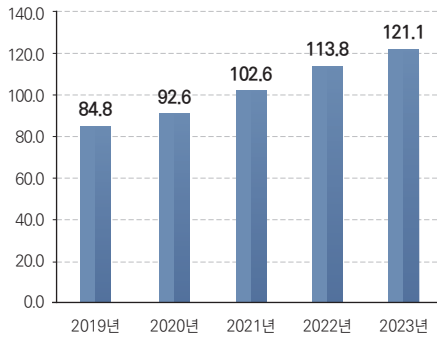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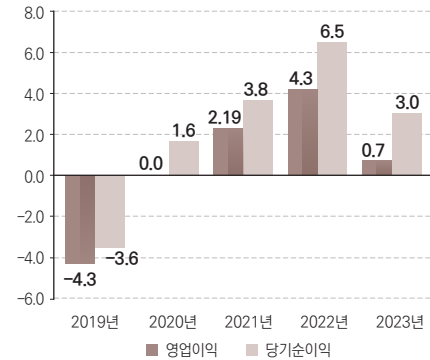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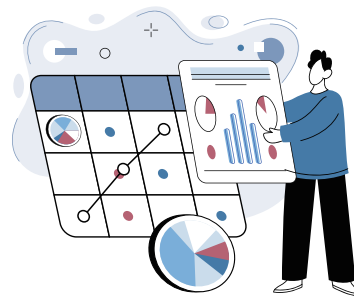
그림 10 영업이익·당기순이익

(단위: 조원)



출처: 기획재정부, 「준정부기관 결산서」,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작성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 수 증가, 보수월액 상승 및 보험요율 증가 등으로 보험료수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의료수가 인상 및 의료서비스 이용 증가에 따라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급여비가 증가하여 영업비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개인위생관리가 강화되면서 병원방문 횟수 감소 등으로 2020년 영업손실에서 영업이익으로 전환되었고, 2022년까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유지하였다. 2023년에는 보험급여비용 증가율이 보험료수입 증가율을 상회하여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전년대비 3.5조원 및 3.6조원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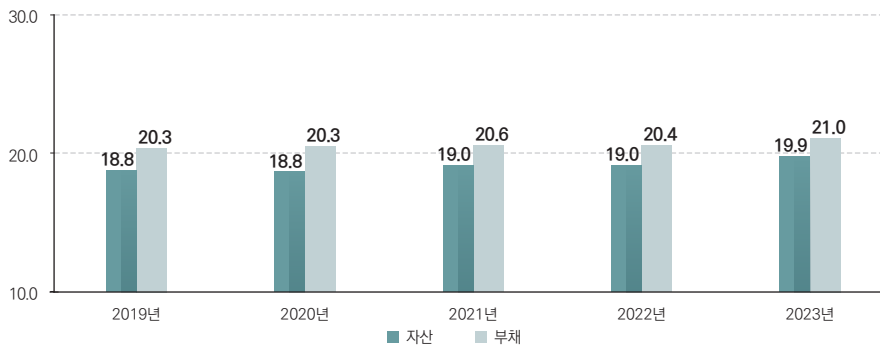


3) 국가철도공단

2023회계연도 국가철도공단의 자산은 19.9조원, 부채는 21.0조원으로 준정부기관 총자산 중 5.9%, 총부채 중 7.7%를 차지하고 있다. 자산과 부채의 과거 5개년 추세는 다음과 같다.

그림 11 자산·부채

(단위: 조원)



출처: 기획재정부, 「준정부기관 결산서」,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작성

국가철도공단의 경우 자산의 대부분이 비유동자산(2023년 기준 92.6%)으로, 유형자산(건축물 및 건설중인자산 등)과 무형자산(사용수익기부자산 등 용역운영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산 및 부채는 고속철도 자체 사업비 증가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림 12 영업수익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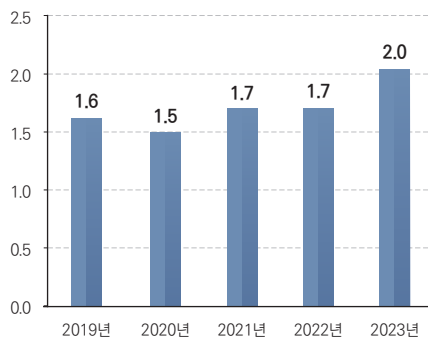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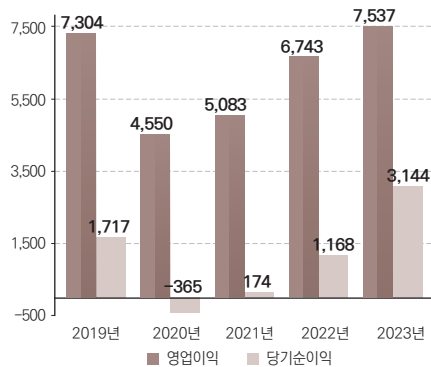


그림 13 영업이익·당기순이익

(단위: 조원)



출처: 기획재정부, 「준정부기관 결산서」,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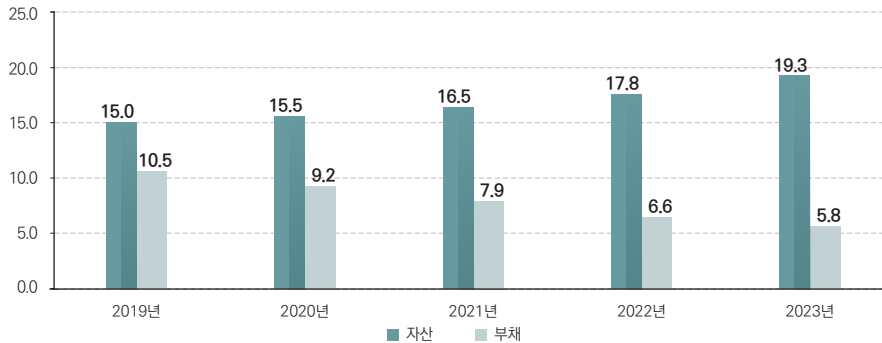
국가철도공단은 고속철도 건설비용의 50~65%를 공단채권 발행으로 조달하고, 철도운영사(코레일, SR(주))로부터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철도 선로 사용료로 징수하여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는 구조이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 영향으로 선로 사용료가 크게 감소하면서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으나, 이후 코로나 영향에서 회복하면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증가하고 있다. 2023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794억원 증가하였고,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1,946억원 증가하였다.

4) 예금보험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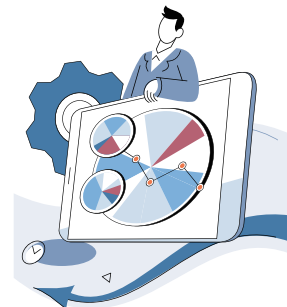
2023회계연도 예금보험공사의 자산은 19.3조원, 부채는 5.8조원으로 준정부기관 총자산 중 5.7%, 총부채 중 2.1%를 차지하고 있다. 자산과 부채의 과거 5개년 추세는 다음과 같다.

그림 14 자산·부채

(단위: 조원)



출처: 기획재정부, 「준정부기관 결산서」,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작성



예금보험공사는 보험료수입 등을 활용하여 운용자산을 늘려 자산은 증가하고, 발행채권을 상환하여 부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그림 15 영업수익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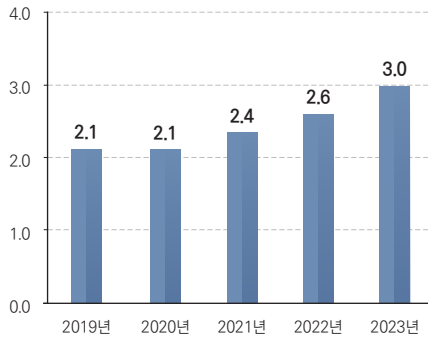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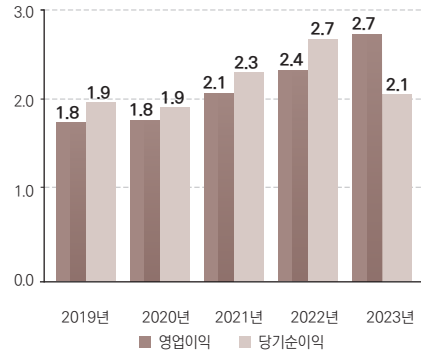


그림 16 영업이익·당기순이익

(단위: 조원)



출처: 기획재정부, 「준정부기관 결산서」,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작성

예금보험공사는 부보금융회사로부터 매년 예금 잔액의 일정 비율을 보험료로 수령하고 있다. 차입 금리의 상승으로 이자비용이 증가하였음에도 기준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수익의 증가 및 부보예금 평균잔액 증가로 보험료수익이 증가함에 따라 영업이익이 증가하였다. 2023년에는 이자수익 증가, 보험료수익 증가 등으로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798억원 증가하였으나 당기순이익은 총당부채의 적립 및 대손충당금 환입액 감소로 인해 전년 대비 6,014억원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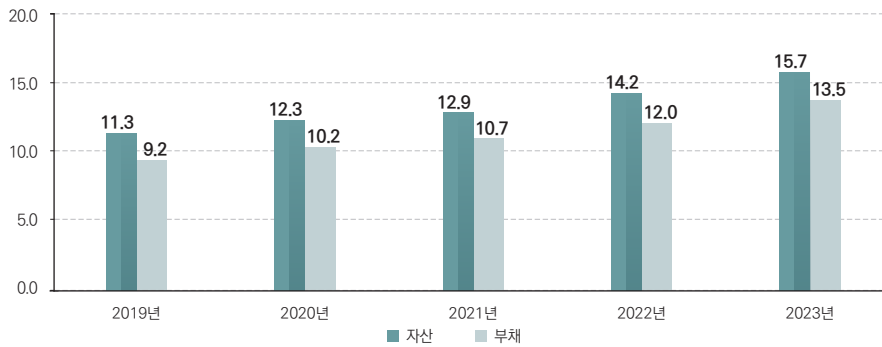


5) 한국농어촌공사

2023회계연도 한국농어촌공사의 자산은 15.7조원, 부채는 13.5조원으로 준정부기관 총자산 중 4.7%, 총부채 중 4.9%를 차지하고 있다. 자산과 부채의 과거 5개년 추세는 다음과 같다.

그림 17 자산·부채

(단위: 조원)



출처: 기획재정부, 「준정부기관 결산서」,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작성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촌진흥청의 부동산 개발사업 및 농지은행 사업 확대에 의해 자산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이에 따른 사업비 조달을 위한 차입금 발행으로 부채도 증가하고 있다.

그림 18 영업수익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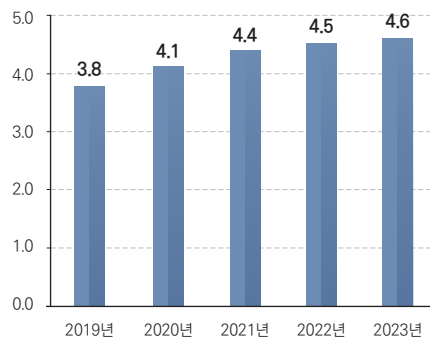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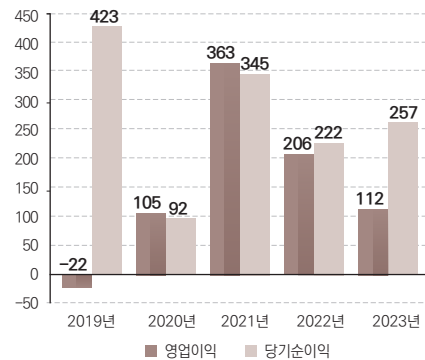


그림 19 영업이익·당기순이익

(단위: 조원)



출처: 기획재정부, 「준정부기관 결산서」,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작성

한국농어촌공사는 새만금산업단지 분양 및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등으로 인해 영업수익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사업 확대에 따른 공사비 등 영업비용의 증가로 영업이익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2019년에는 유형자산처분이익 등 영업외수익 증가로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하였고, 2020년에는 전년도 유형자산처분이익 기저효과로 당기순이익이 감소하였다. 2023년에는 배수개선사업 등의 매출증가로 영업수익이 증가했으나, 사업물량 확대에 따라 영업비용이 증가하여 영업이익이 감소한 반면, 유형자산처분이익의 증가 및 소송충당부채의 환입 등으로 당기순이익이 소폭 증가하였다.



02 2024년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 (9~11월) 안내



2024년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 안내를 기획재정부 업무연락 포털시스템과 공문을 통해 진행하였다.

본 교육은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신뢰성 제고를 위한 회계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2022년부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가 기획재정부로부터 회계교육 사업을 위탁받아 매년 진행하고 있다.

2024년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에서는 2023년 교육운영 시 교육생들의 피드백 중 ‘공기업·준정부기관 특성에 맞는 실무 교육 강화, 수준별 기초 및 심화 교육의 구분’ 요청을 반영하여 커리큘럼을 구성하였다. 기존 교육 일수 3일을 유지하여 1일차에는 K-IRFS 계정과목 해설 중심의 기초내용 교육, 2일차에는 리스, 종업원급여 및 정부보조금 등 이슈별 심화교육, 3일차에는 연결재무제표, 법인사회계 및 현금흐름표 등 작성 실무 교육으로 구성하였다.

총 4회차로 구성된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교육은 9~11월에 진행될 예정으로 세종에서 1회(정부세종컨벤션센터), 서울에서 3회(서울글로벌센터, 은행회관) 실시된다. 교육대상은 202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이지만 기타공공기관들도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1 교육일정

차수	지역	일정	시간	장소	수용인원
1차	서울	9.25.(수)~9.27.(금)	3일(21시간)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	100
2차	서울	10.16.(수)~10.18.(금)	3일(21시간)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	100
3차	세종	10.30.(수)~11.1.(금)	3일(21시간)	정부세종 컨벤션센터	100
4차	서울	11.13.(수)~11.15.(금)	3일(21시간)	은행회관 국제회의실	100

표 2 교육 커리큘럼

일자	교육 과목	시간	주요 내용
1일차 (7.0H) 기초	회계순환과정 및 재무제표 표시	09:00-10:30	- 회계의 기초 및 재무제표의 종류 - 회계순환과정
	K-IFRS 계정과목해설 -유무형자산(기초)	10:30-12:00	- 유무형자산 측정, 감가상각, 손상
	K-IFRS 계정과목해설 -금융자산(기초)	13:00-14:30	- 금융자산 표시, 측정, 회계처리
	K-IFRS 계정과목해설 -부채&자본(기초)	14:30-16:00	- 채권발행 및 이자비용 인식, 상환 - 총당부채 및 우발부채 회계처리 - 자본의 세부 항목별 인식 및 측정
	K-IFRS 계정과목해설 -수익(기초)	16:00-17:00	- 수익인식모형 - 수익인식 회계처리
2일차 (7.0H) 심화	리스(심화, 사례)	09:00-10:00	- 리스 회계처리 및 주요 오류사례
	종업원급여(심화, 사례)	10:00-11:00	- 단기종업원급여, 퇴직급여
	특수한 지분투자(심화, 사례)	11:00-12:00	- 특수한 지분투자 사례
	정부보조금	13:00-15:00	- 정부보조금 회계처리
	외부회계감사 주요 오류사례	15:00-17:00	- 주요 오류사례(자산, 부채, 손익 등)

표 2 의 계속

일자	교육 과목	시간	주요 내용
3일차 (7.0H) 작성 실무	연결재무제표(작성실무)	09:00-10: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결재무제표의 연결범위 - 지분법 회계처리와의 차이 - 연결 절차 실습 및 사례 - 별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와의 차이
	법인세회계(작성실무)	10:30-1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 회계개요 - 법인세주석 작성 과정 실습 - 법인세 관련 주요 이슈 사례
	현금흐름표(작성실무)	13:00-15: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의 범위 및 현금흐름 구분 - 영업, 투자,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간접법에 따른 현금흐름표 작성 - 주식공시의 비현금거래
	결산서 작성방법(실무)	15:30-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처리, 결산, 주석 작성 유의사항



03 2022년 공익법인 재무현황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국세청 홈택스에 공시된 2022회계연도 공익법인 결산서류를 활용하여 2022회계연도 공익법인 재무현황을 분석하였다.¹²⁾

가. 공익법인 현황

공익법인 사업유형은 교육, 문화, 사회복지, 의료, 학술·장학, 기타로 구분되며 2022년 공익법인의 사업유형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위: 기관 수, %)

공익사업유형	공익법인 수
교육	1,796 (15.9)
문화	881 (7.8)
사회복지	3,025 (26.8)
의료	1,068 (9.5)
학술·장학	2,708 (24.0)
기타	1,810 (16.0)
합계	11,288 (100.0)

2022년 공익법인은 총 11,288개¹³⁾로 사회복지 분야가 3,025개(26.8%)로 가장 많고, 학술·장학(2,708개, 24.0%), 기타(1,810개, 16.0%) 분야 순으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2) 공익법인 공시 및 공개시스템에서 2023년 1월 16일 조회(2021년 자료), 2024년 6월 5일 조회(2022년 자료)

13) 공공기관은 일반 공익법인에 비해 자산, 수익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며 일반 공익법인과 그 성격이 상이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함(2022년 기준 165개)

나. 공익법인 자산·부채 현황

2022년 공익법인의 총자산은 258조 938억원으로 전년 대비 7조 9,792억원(3.2%) 증가하였으며, 총부채는 85조 4,508억원으로 전년 대비 6조 8,766억원(8.8%) 증가하였다.

(단위: 억원, %)

유형	자산				부채			
	2021	2022	증감	증감률	2021	2022	증감	증감률
교육	1,092,694	1,137,678	44,985	4.1	224,101	240,617	16,516	7.4
문화	98,757	99,509	751	0.8	13,261	10,836	△2,425	△18.3
사회복지	202,693	212,806	10,113	5.0	38,498	42,075	3,577	9.3
의료	256,900	279,661	22,760	8.9	155,943	157,980	2,036	1.3
학술·장학	262,185	258,871	△3,314	△1.3	33,790	34,050	260	0.8
기타	587,916	592,414	4,497	0.8	320,148	368,950	48,802	15.2
총계	2,501,146	2,580,938	79,792	3.2	785,742	854,508	68,766	8.8

2022년 공익법인의 평균 자산은 229억원으로 전년 대비 6억원(2.6%) 증가하였으며, 평균 부채는 76억원으로 전년 대비 6억원(8.1%) 증가하였다.

(단위: 억원, %)

유형	자산				부채			
	2021	2022	증감	증감률	2021	2022	증감	증감률
교육	614	633	20	3.2	126	134	8	6.4
문화	117	113	△4	△3.4	16	12	△3	△21.6
사회복지	67	70	3	4.6	13	14	1	8.9
의료	239	262	23	9.8	145	148	3	2.2
학술·장학	98	96	△2	△2.4	13	13	△0	△0.4
기타	322	327	5	1.6	175	204	28	16.2
총평균	223	229	6	2.6	70	76	6	8.1

교육 분야 공익법인은 학교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토지와 건물의 영향으로 평균 자산이 633억원으로 가장 크며, 사회복지 분야 공익법인은 평균자산이 70억원으로 규모가 작은 공익법인이 많다.

다. 공익법인 수익·비용 현황

2022년 공익법인의 총수익은 131조 7,832억원으로 전년 대비 9조 3,840억원 (7.7%) 증가하였으며, 총비용은 128조 7,424억원으로 전년 대비 11조 9,286억원 (10.2%) 증가하였다.

(단위: 억원, %)

유형	수익				비용			
	2021	2022	증감	증감률	2021	2022	증감	증감률
교육	524,962	567,964	43,003	8.2	517,903	568,022	50,119	9.7
문화	39,236	39,347	112	0.3	32,661	37,595	4,934	15.1
사회복지	158,867	178,636	19,768	12.4	153,677	172,745	19,068	12.4
의료	233,618	255,454	21,836	9.3	220,542	235,941	15,400	7.0
학술·장학	90,911	98,698	7,787	8.6	84,398	90,388	5,990	7.1
기타	176,399	177,733	1,334	0.8	158,956	182,732	23,776	15.0
총계	1,223,992	1,317,832	93,840	7.7	1,168,138	1,287,424	119,286	10.2

2022년 공익법인의 평균 수익은 117억원으로 전년 대비 8억원(7.0%) 증가하였으며, 평균 비용은 114억원으로 전년 대비 10억원(9.5%) 증가하였다.

(단위: 억원, %)

유형	수익				비용			
	2021	2022	증감	증감률	2021	2022	증감	증감률
교육	295	316	21	7.2	291	316	25	8.7
문화	46	45	△2	△3.8	39	43	4	10.4
사회복지	53	59	6	12.1	51	57	6	12.0
의료	217	239	22	10.3	205	221	16	7.9
학술·장학	34	36	2	7.3	32	33	2	5.9
기타	97	98	2	1.6	87	101	14	15.9
총평균	109	117	8	7.0	104	114	10	9.5

교육 분야 공익법인의 평균 수익이 316억원으로 가장 큰데 학교의 등록금수익으로 인한 효과이며, 의료 분야 공익법인도 의료수익으로 인해 평균 수익이 큰 편(239억원)이다.

라. 공익법인 주 수입원 기준 재무분석

공익법인의 주요 수입원에 따라 공익법인의 사업성격이나 재무적 특징이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어 공익법인의 주 수입원을 기준으로 재무분석을 수행하였다.

주 수입원은 공익법인의 운영성과표를 기준으로 '기부금', '보조금', '회비수익', '투자자산수익', '매출액·기타'로 구분하였다.

(단위: 기관 수,%)

구분	기관 수	평균 주 수입원 비중
기부금	2,302 (21.1)	84.2
보조금	3,233 (29.6)	80.4
매출액·기타수익	3,961 (36.2)	86.8
투자자산수익	1,254 (11.5)	89.6
회비수익	185 (1.7)	71.9
총합계	10,935 ¹⁴⁾ (100.0)	84.4

공익법인의 주 수입원은 자체 수익사업(매출액·기타)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외부지원금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이 50.6%(보조금 29.6%, 기부금 21.1%)로 공익법인의 절반 정도가 외부지원금으로 운영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주 수입원이 공익법인의 사업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4.4%에 달해 수익구조가 편중된 경향을 보여준다.

(1) 주 수입원별 공익법인 유형 분석

기부금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은 학술·장학 분야(장학재단 등)가 가장 많으며, 보조금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은 사회복지 분야가 가장 많다.

자체 수익사업 활동(매출액·기타수익)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관은 의료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가 많은데,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기관과 요양원, 장애인·노인 등 취약 계층 일자리제공 시설의 사회복지 공익법인이 해당된다.

14) 2022년 공익법인 공시자료 중 운영성과표 사업수익이 기재된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하여 사업수익이 기재되지 않은 공익법인 제외

투자자산수익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은 학술·장학 분야가 가장 많다.

(단위: 기관 수,%)

구분	교육	문화	사회복지	의료	학술장학	기타	총계
기부금	199	208	546	19	778	552	2,302
	(8.6)	(9.0)	(23.7)	(0.8)	(33.8)	(24.0)	(100.0)
보조금	706	340	1,355	17	227	588	3,233
	(21.8)	(10.5)	(41.9)	(0.5)	(7.0)	(18.2)	(100.0)
매출액/ 기타	643	218	871	999	717	513	3,961
	(16.2)	(5.5)	(22.0)	(25.2)	(18.1)	(13.0)	(100.0)
투자자산 수익	147	69	128	9	830	71	1,254
	(11.7)	(5.5)	(10.2)	(0.7)	(66.2)	(5.7)	(100.0)
회비 수익	51	15	47	1	24	47	185
	(27.6)	(8.1)	(25.4)	(0.5)	(13.0)	(25.4)	(100.0)
총계	1,746	850	2,947	1,045	2,576	1,771	10,935
	(16.0)	(7.8)	(27.0)	(9.6)	(23.6)	(16.2)	(100.0)

(2) 주 수입원별 자산규모와 자산 구성 현황

주 수입원별 자산규모를 분석한 결과, 매출액·기타수익과 회비수익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의 평균 자산규모가 429억원, 351억원으로 큰 편이며 기부금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은 78억원으로 가장 작다.

자체수익의 비중이 큰 공익법인일수록 토지, 건물 등 유형자산의 규모가 커서 평균 자산규모가 크게 나타났다.

(단위: 억원)

구분	토지	건물	주식 및 출자지분	금융자산	기타자산	평균 자산
기부금	15	8	8	39	8	78
보조금	45	27	2	35	15	123
매출액·기타수익	68	105	16	154	86	429
투자자산수익	21	14	49	86	13	182
회비수익	76	121	19	98	40	351
총평균	45	51	14	86	39	235

기부금, 투자자산수익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은 상대적으로 금융자산 비중이 높고, 매출액·기타수익, 회비수익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은 유형자산의 비중이 높은 특징을 보인다.

기부금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은 활동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부금의 영향으로 금융자산의 비중이 높으며, 투자자산수익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은 이자·배당수익을 위한 주식 및 출자지분과 금융자산의 비중이 높다.

(단위: %)

구분	토지	건물	주식 및 출자지분	금융자산	기타자산
기부금	11.4	10.6	2.8	61.7	13.4
보조금	21.3	24.9	0.6	37.6	15.7
매출액·기타수익	21.5	27.0	1.0	29.2	21.3
투자자산수익	9.5	7.2	10.4	67.6	5.2
회비수익	17.8	22.7	1.7	40.0	17.8
총계	17.9	20.6	2.3	43.1	16.1

(3) 주 수입원별 사업수익규모 현황

공익법인의 평균 수익규모는 114.2억원이며, 매출액·기타수익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이 212.3억원으로 가장 크고 투자자산수익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이 13.8억원으로 가장 작다.

(단위: 억원)

구분	기부금	보조금	매출액/기타	투자자산수익	회비수익	평균
평균 수익	29.4	92.8	212.3	13.8	123.6	11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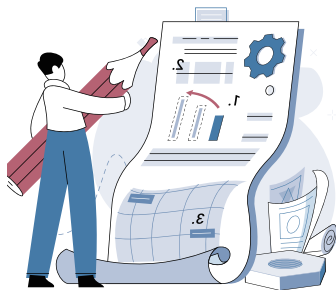
사업수익규모별 공익법인의 현황을 살펴보면 투자자산수익과 기부금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은 사업수익이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익법인이 많다. 특히 투자자산수익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중 74.7%(937개)가 3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익법인이다.

매출액·기타수익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은 소규모 공익법인이 적으며 규모가 큰 공익법인이 많은 편이다.(1천억원 이상 125개, 3.2%)

회비수익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은 절반 이상이 사업수익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익법인(99개, 53.5%)이지만, 사업수익이 1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도 34개(18.4%)로 높은 경향이 있다. 소규모 공익법인은 각종 협회, 학회, 사회운동성단체 성격의 기관이 많으며, 사업수익이 큰 공익법인은 대부분 사립대학이 해당한다.

(단위: 기관 수,%)

구분	~ 3억	3억 ~ 10억	10억 ~ 50억	50억 ~ 100억	100억 ~ 1000억	1000억~	총계
기부금	1,021 (44.4)	655 (28.5)	449 (19.5)	84 (3.6)	81 (3.5)	12 (0.5)	2,302 (100.0)
보조금	164 (5.1)	803 (24.8)	1,142 (35.3)	504 (15.6)	576 (17.8)	44 (1.4)	3,233 (100.0)
매출액/ 기타	673 (17.0)	750 (18.9)	1,176 (29.7)	547 (13.8)	690 (17.4)	125 (3.2)	3,961 (100.0)
투자자산 수익	937 (74.7)	170 (13.6)	102 (8.1)	17 (1.4)	25 (2.0)	3 (0.2)	1,254 (100.0)
회비 수익	49 (26.5)	50 (27.0)	41 (22.2)	11 (5.9)	30 (16.2)	4 (2.2)	185 (100.0)
총계	2,844 (26.0)	2,428 (22.2)	2,910 (26.6)	1,163 (10.6)	1,402 (12.8)	188 (1.7)	10,935 (100.0)





세미나



- 제5회 KIPF 발생주의 회계 국제심포지엄 개최 안내

제5회 KIPF 발생주의 회계 국제심포지엄 개최 안내



- 주 제: 한국의 공공부문 통합재정정보
- 일 시: 2024년 11월 7일 (목) 14:00~17:00
- 장 소: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
- 주 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이하 '센터')는 오는 11월 7일에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제5회 KIPF 발생주의 회계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다. 저출생·고령화 등의 인구위기와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가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심포지엄에서는 현재와 미래의 정부지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지속가능한 재정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공공부문 전체의 통합재정정보의 필요성과 관련 사례를 살펴보고, 재정정보 통합을 위한 정책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의 공공부문 통합재정정보**」를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심포지엄은 기초연설과 주제발표 및 종합토론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먼저 기초연설로, Sagé de Clerck IMF 선임 이코노미스트가 통합 재정 및 통계 보고 원칙을 주제로, 정부 재정 통계 매뉴얼 (GFSM)을 중심으로 포괄적인 재정정보 통합을 위한 핵심 체계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발표세션에서는 세 가지 핵심 주제가 논의될 예정이며,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는 박성진 연세대 글로벌행정학과 교수(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가 통합 결산정보(WGA)의 목적과 유용성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도입에 대한 함의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다. 뒤이어 박정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통계관리부장이 지방정부와 지방공공기관의 재정정보 통합 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남상욱 한국재정정보원 결산시스템운영부장이 중앙·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의 통합 재정 데이터 수집 및 효과적 활용을 위한 dBrain⁺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종합토론에서는 국제기구, 학계, 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이 모여 공공부문 전체의 재정 정보 통합을 위한 실용적인 방법론과 세부 정책 수단을 논의할 예정이다.

본 심포지엄은 기후변화와 고령화 등으로 정부의 재정 지속가능성 증진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공공부문 전체의 자산, 부채, 순자산, 수익 및 비용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재정정보 통합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세부 정책 수립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5회 KIPF 발생주의 회계 국제심포지엄 프로그램

사회자: 문창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 직무대리

시간	주요 내용	
개회식		
14:00~14:25 (25)	개회사	이 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축사	김완희 한국정부회계학회 회장(가천대 경영학부 교수) Andrew Blazey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관리에산 부부장
기조연설		
14:25~14:50 (25)	통합 재정 및 통계 보고 원칙	Sagé de Clerck 국제통화기금(IMF) 선임 이코노미스트
주제 발표		
14:50~15:50 (60)	발표 1.	통합결산정보의 의미와 역할 박성진 연세대 글로벌행정학과 교수(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
	발표 2.	지방정부 및 지방공공기관의 재정정보통합 박정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통계관리부 부장
	발표 3.	발생주의 회계 관점의 dBrain+ 소개 남상욱 한국재정정보원 결산시스템운영부 부장
15:50~16:00	휴 식(10')	
종합 토론		
16:00~17:00 (60)	좌 장 론	김봉환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Dmitri Gourfinkel World Bank 선임 거버넌스 스페셜리스트 Ross Smith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 프로그램 및 실무 국장 김태동 차 의과학대 데이터경영학과 교수 장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국가회계
재지통계



공지사항



구독 안내

「국가회계재정통계」는 회계전문연구기관인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 발간하는 분기발간 물로서, 주요 내용으로 국가회계, 국가결산, 국가회계교육, 재정통계, 공기업·준정부기관, 공익 법인회계기준 등에 대한 동향 및 분석 자료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독을 신청하면 무료로 받아 보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신청 방법

- 홈페이지 신청 <http://gafsc.kipf.re.kr>
- 이메일 신청 gafsc@kipf.re.kr



홈페이지 이용 안내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홈페이지(<http://gafsc.kipf.re.kr>)는 국가회계기준과 관련 법령 및 센터에서 수행하는 정책연구 관련 정보를 제시하며, 국가회계기준에 대한 단순질의에서 문서질의까지 질의회신을 통해 신속하게 답변하고 있으니 평소 궁금했던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신 발간자료와 주요 발간자료 메뉴를 통해 연구보고서, 기타보고서, 브리프, 세미나자료 등 국가회계 및 재정통계 발간물 등을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배치하여,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건전한 재정과 투명한 회계를 위한 노력!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가 앞장섭니다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별관 4층
Tel 044.414.2561 Fax 044.414.2570

